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코스피(16일)	2106.10 (+8.92P)	코스닥	693.38 (+2.99P)
환율(달러당 원화)	1120.1 (-0.66원)	금리(국고채 3년물)	1.803% (+0.006%p)

국민연금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칼 빼나

박능후 장관, 기금운용위원회 주재
수탁자책임위 검토 후 내달 초 결론
기업 경영참여 논란 다시 불거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검토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월 초까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방식 등 최종 결정을 내린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권을 발동하면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풍부한 자료를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논란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

면서 불거졌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가진 2대 주주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자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대한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답해 보다 강력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막상 주주권 행사 결정을 앞두고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행동주의 펀드를

지향하는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의 2대 주주로 떠오르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지지하고 있지만,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선부른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은 사모펀드 KCGI의 잇속만 챙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최대 관심사는 3월에 열릴 주주총회다. 대한항공 이사 중 조양호 회장과 1인은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핀테크 손톱 밑 가시 ‘금융실명제’ 손본다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 복잡
금융위, 관련법 예외조항 검토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 비대면 영업 확대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련기사 8면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실명법이나 시행령에 핀테크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예외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 금융실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다 빠른 방법으로 유권 해석을 유연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2015년 허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확대하거나 간소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현재 크게 5가지 비대면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한다. 신분증 사본과 영상 통화,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접근 매체 전달 확인, 기존 계좌 활용, 생체인증 등의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이 가운데 2가지를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휴대전화 인증과 다른 개인정보 검증 등 2가지 방법은 추가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케이뱅크의 경우 휴대전화 인증을 거친 뒤 신분증 사본을 찍어서 받는다. 그 뒤 신분증을 들고 직원과 화상통화를 하거나 자신의 기존 계좌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는 절차를 거친다.

금융실명법은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막기 위해 1993년 도입됐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계좌를 열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나 실명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2015년 이전에는 은행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보고 얼굴을 직접 확인했다. ▶8면에 계속 이새하 기자 shys0536@ 김보름 기자 fullmoon@

모처럼 파란 하늘...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



북쪽에서 찬 공기가 불어오며 기온이 하강하고 맑은 날씨를 보인 16일 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모처럼 푸르다. 하지만 하루 새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17일엔 추위가 다소 수그러들겠지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오른쪽 아래 작은 사진은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온통 회색 먼지에 싸인 서울 여의도 모습. 뉴시스

英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예고된 결과” 시장은 ‘차분’

다우 0.65% 오르고 영국 파운드화 가치 상승
재협상·연기 등에 주목... 中 경기부양책도 관심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승인투표가 역대 최고 큰 표차로 부결됐지만 예상된 결과였던 만큼 시장은 비교적 차분했다. 시장은 오히려 유럽연합(EU)과의 재협상이나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 등 추후 일정과 중국의 경기 동향에 더 주목하고 있다. ▶관련기사 3-6면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55.75포인트(0.65%) 오른 2만4065.59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27.69포인트(1.07%) 상승한 2610.30에, 나스닥지수는 117.92포인트(1.71%) 오른 7023.83에 장을 마감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전날까지 최근 2년간 최저 수준에서 거래되던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상승하며 이번 투표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

된 모습을 연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부결 소식이나오기 직전까지 뉴욕 외환시장에서 파운드·달러 환율은 장중 1.5% 넘게 하락(파운드화 약세)하다가 부결 발표 이후 전장보다 0.13% 오른 1.28831달러에 거래됐다. 파운드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전날 대비 1% 넘게 상승했다. 16일 아시아증시에서도 합의안 부결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15일 오후 7시께 영국 하원의원 634명은 정부와 유럽연합(EU)의 EU 탈퇴협정 합의문에 대해 찬성 202표, 반대 432표를 던져 230표차로 부결시켰다. 영국의 의정 사상 정부가 200표가 넘는 표차로 의회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위기가 가까워진 상황이지만 시장은 크게 동



하고 있다. 브렉시트 기한인 3월 29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시장 참가자들은 브렉시트 리스크보다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집중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와 인민은행 등 당국은 감세와 적절한 수준의 투자사업·채권 발행 가속, 유연한 통화정책 등 경기부양 확대 신호를 보냈다. 발개위는 이날 “올해 첫 분기 경제가 ‘좋은 출발’을 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 등 주요 인사도 올해 중국의 경제 둔화에 대응해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BK에셋 매니지먼트의 보리스 솔로스버그 외환전략부문 이사는 “투자자들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영국이 ‘경제적 자살’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장 신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작년 손상돼 폐기한 돈 롯데월드타워 113배 높이

4조3000억...전년보다 4.1% 증가

경기 김포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남모씨는 물품구매 대금을 집에 보관하던 중 폭우로 인한 누수로 은행권 2억4035만 원이 훼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남 씨처럼 습기에 부패하고 불에 타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폐기한 손상 화폐가 금액 기준 4조2613억 원, 장수 기준으로는 6억2700만 장에 달했다. 이는 전년(3조7693억 원·6억200만 장) 대비 4.1% 증가한 것이다. 폐기된 손상 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할 경우 소요 비용은 639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은행권은 4조2590억 원으로 5억9000만 장을 기록했다. 이를 낱장으로 쌓으면 62.5km로 롯데월드타워의 113배, 백두산의 23배 높다. 김민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남북경협, 녹록지 않아… 조선족이 경쟁 우위”

남북경협 콘퍼런스

“지난해 평양과 북중 접경지역을 다녀왔는데 남북경협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16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주최한 ‘북한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콘퍼런스’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중국, 특히 동북 3성에 있는 조선족 기업가들도 북한과의 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사업 경협이 풍부하고 북한식 말투까지 같은 조선족 기업가, 사회주의 체제적 동질성,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중국이 우리보다 앞선 경쟁 요

사업 경험·막대한 자금력 갖춰 사회주의 체제 동질성도 한몫 南·北·中 3자 협력 모델 필요

소를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높고 중국 동포의 동질성 또한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막연한 협력을 기대하기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이번 남북 콘퍼런스는 박 회장과 대한상의 회장단이 작년 10월 북중 접경지역을 방문한 후 기획된 만큼 300여 명의 기업인



들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평양과 북중 접경지역을 다녀오면서 우리에게 남북 간 동일 민족, 동일 언어 등 문화적 동질성과 같은 분명한 강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동질성 이상으로 뿌리가 깊은 동질성을 가지고 조선에 뿌리를 둔 분들(조선족)이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북한과 중국 경제 전문가들도 연사로 참석해 남북 경제협력과

정에서 중국과 조선족 기업가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춘복 중국 남개대 교수, 안국산 중국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 토론패널은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이 참여했다.

이춘복 교수는 ‘북한의 정책노선 전환과 북중 경협 전망’ 발표를 통해 “북한 주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거는 기대는 경제강국, 부국의 실현”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나온 ‘새로운 길’은 자력 경제 기반 구축과 한·중·러 다자협력력을 통한 부분적 제재 완화를 내포한

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경제 개방은 북중 접경지역 중심으로 중국의 특구개발 방식을 모델로 삼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중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중 3자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국산 경제연구소장은 ‘북한의 경제현황과 대외경협 여건’ 발표를 통해 “향후 북한 경협 여건에 있어 중국 내 조선족 기업가들이 대북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서 “조선족 기업가들은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 시장에 단독 진출하거나 중국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데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IB 명가’ 성장 주역 정영채, 경상이익 1兆 ‘큰 그림’

NH투자증권 창립 50주년

취임 2년차 사상 최대성과 전망 영업 활동 강화·고객 가치 증점 자본 배분 등 경영 고도화 추진

NH투자증권이 16일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자본금 1억2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는 50년이 지난 현재 5조 원대로 성장했다. 올해 취임 2년 차를 맞은 정영채 사장은 지난 50년의 행보를 바탕으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역사 50년, 7번의 사명변경 = NH투자증권은 50년 동안 합병과 인수 등으로 사명이 7차례 바뀌었다. 1969년 1월 12개 보험회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한보증권으로 출발했다.

자본금은 1억2000만 원으로 당시 국

	1999년 10월 합병	2005년 3월 합병	2014년 12월 합병	2017년 12월	2018년 9월
회사명	LG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NH투자증권		
총자산	8조1315억	5조9195억	41조591억	43조8927억	49조9151억
자기자본	1조6441억	1조7993억	4조3780억	4조8362억	5조228억
순이익	3112억	426억	812억	3496억	3498억
지점 수(개)	98	131	84	76	76
직원 수(명)	2505	2445	3228	2811	2868

※ 출처: NH투자증권



내 최대 증권회사였다. 1979년에는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해 대형 증권사로써 처음으로 여의도 시대를 열었다. 이후 합병과 편입 등으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대보증권과 럭키증권, LG증권, LG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등으로 사명도 변화했다. 지금의 NH투자증권은 2014년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되면서

탄생했다. <IB명가에서 초대형 IB로 발돋움 = NH투자증권은 증권업계에서 IB명가로 손꼽힌다. 나인원한남, 여의도MBC, 서울스퀘어빌딩 등 국내 굵직한 빌딩은 NH투자증권의 손을 거쳤다. 작년 3월에는 NH투자증권을 IB 명가로 이끌던 정영채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관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5월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국내 2호 단기금융업 사업자로 인가받아 발행어음 사업도 시작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9조 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사로 선정됐다.

회사 실적 성장도 순항 중이다. 2018년 3분기에는 순이익이 3500억 원을 기

록해 이미 전년도 연간 순이익을 초과하는 등 창립 이래 사상 최대의 성과가 예상된다.

◇‘출범 2년 차’ 정영채호… “2023년 경상이익 1조” = 50주년이라는 큰 기념일이지만 이렇다 할 만한 자축행사는 없었다. 상대한 행사보다는 임직원들이 경영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그다음 50년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정 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취임 당시 ‘2023년 경상이익 1조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11일 목표달성 결의대회에서는 “효과적인 자본 배분과 경영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운용자산의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면서 “고객과의 관계 형성과 영업활동을 강화해 과정의 가치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기도 일산 NH인재원에 역사관을 개관했으며 50년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기록해 50년 사사(社史)을 발간했다. 또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연 5%의 적립형 발행어음 등 특관상품 2종을 한시적으로 판매에 나섰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www.kepco.co.kr

세계 최고를 넘어, 新에너지 세상으로 -

섬은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햇살이, 바다가, 바람이
내일의 빛을 만들어줍니다.

자연에서 전기를 만들고
마법처럼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전력이 꿈꾸는
깨끗한 에너지 세상입니다.

세계 1위 전력회사를 넘어
깨끗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는

Beyond the Top, Leading KEPCO-

‘노 딜’ 땀 관세폭탄?... 섹법 복잡해진 韓 산업계

對英 수출 영향은

“교역품목 74% 관세증가 우려”
비중 큰 중공업계 타격 불가피
“무역량 많지 않아 영향 제한적”
조선·車업계는 ‘관망론’ 우세

준비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섹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공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영국 수출 비중이 적어 생각보다 큰 충격 없이 이번 사태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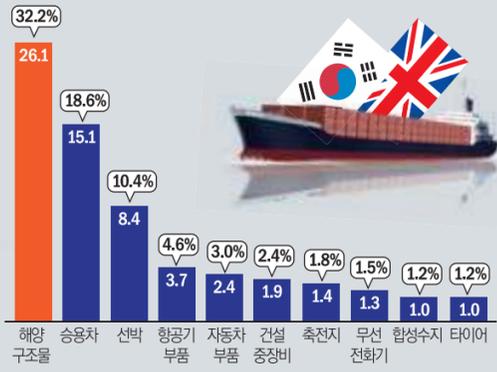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영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2017년 기준 3824개, 수출액은 81억2000만 달러(약 9조1074억 원)다.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이 EU의 현행 최혜국대우(MFN) 관세 수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영국에 수출하는 2948개 품목 중 74.2%, 2186개 품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금액 기준으로 31억6000만 유로(약 4조414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2017년 기준 영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의 66%에 달하는 규모다.

당장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국내 중공업계다. 우리나라의 영국 수출 주요 품목은 해양구조물(32.2%), 승용차(18.6%), 선박(10.4%), 항공기부품(4.6%), 자동차부품(3%), 건설중장비(2.4%), 축전지(1.8%), 무선전화기(1.5%), 합성수지(1.2%), 타이어(1.2%)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10%), 테레프탈산



한국의 대영국 수출 주요 품목 (단위: 억 달러)



한국의 대영국 수출액 (단위: 억 달러)



(6.5%), 타이어(4.5%), 폴리에스터 섬유(4%), 자동차용 브레이크(4%), 자동차용 휠(3.8%), 연산축전지(3.7%), 자동차 부품(3.7%) 등의 관세율 상승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선박·기계류·유탄유 등에서는 중국·일본·미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자동차의 경우 대외공통관세가 10%임을 감안할 때, 향후 일본 자동차 기업과 영국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일본 경쟁업체 대비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영국과 일본이 경제연대협정(EPA) 수준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며 “마사다, 스키 등 유럽 내 생산 거점 없이 일본 본토에서 직수출하는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영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11월 기준 대(對) 영국 수출은 54억4000만 달러

(약 6조1031억 원)로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0.98% 수준이다.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는 “영국 국적 해운사가 많지는 않다. 영국 해군 물량들은 마무리돼서 나갔고, 해양구조물도 북해에 들어가는 것들은 마무리가 됐다”며 “이번 브렉시트와 관련해 조선사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박은 원래 무관세 품목으로 보면 된다”

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선박회사가 발주해도 등록되는 곳은 파나마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도 크게 우려하는 모습은 아니다. 완성차 기업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보통 유럽 공장에서 생산해서 영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브렉시트를 한다고 해도 다른 제조사와 같은 조건이라고 봐야 한다. 영국 내 공장을 보유한 글로벌 메이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외주 시하고 있지만, 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것 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IT 품목의 경우 역시 정보기술협정(ITA)에 의해 이미 무관세화되어 있는 품목(컴퓨터, 휴대전화 등)이 많아 영국이 제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그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안경무 기자 noglasses@

브렉시트發 ‘수출한파’ 대비 정부 ‘韓·英 FTA’ 서두른다

기재부·산업부 대응책 마련 韓銀도 외환시장 예의 주시

정부는 영국발(發) 브렉시트 약재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No-deal) 브렉시트’에 대비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16일 ‘브렉시트 관련 대응회의’를 열었다. 한동안 EU 제도 등을 준용하는 전환기간 없이 29일 EU 탈퇴를 강행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도 이날 통화금융 대책반 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살폈다.

관계 부처 회의를 주재한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영국과 EU가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영국과 거래하는 개별 수출입 기업들의 경우 관세를 변동 등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측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우려는 수출 차질이다. 전환기간이 설정되지 않으면 브렉시트와 동시에 한·EU FTA에 따라 대영(對英) 수출품에 적용되던 특혜관세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영국은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한국 제품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액은 64억 달러에 이른다.

산업부는 브렉시트로 대영 수출 관세가 4%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코트라 역시 브렉시트가 ‘노딜’로 끝나면 대영 수출품 중 74%, 약 2200개 품목에서 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그간 한·EU FTA로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지만 브렉시트 이후엔 10%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영국과 FTA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특혜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재작년부터 한·영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 영국 런던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어 실무 협상을 벌인다. 산업부는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협정 체결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영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신용보증과 무역보험 등 무역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마케팅도 돕기로 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함께 하는 든든한 금융

WOORI FINANCIAL GROUP

더 큰 우리 더 큰 금융

더 큰 희망을 꿈꾸는 2019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합니다
고객에게 힘이 되는 1등 금융으로
세계적인 금융사와 당당히 경쟁하며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14일, 우리금융지주 출범]



우리금융지주 / 우리은행 / 우리카드 / 우리저축 / 우리FIS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우리신용정보 / 우리펀드서비스 / 우리PE자산운용

靑 “투자 전담반 가동·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이해찬 “20년 집권해야 정책 뿌리내릴 수 있어”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 조치 R&D 확대·해운 지원 검토도 정책기조 고수에 실효성 의문

청와대가 16일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중견기업과의 대화에서 밝힌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울러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 추진 △기획재정부·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선 추진단 통한 규제개선 추진 △3월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원전해체 산업 육성방안 등도 후속조치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도 도입과 장기 연구개발(R&D) 확대,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대통령과 경제인 간담회에서 경제인들은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도입, 원전 문제 등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은 이들 정책에 대한 보완을 약속하면서도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활력을 위해 경제계·노동계와의 소통에 계속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다음 달 중 만남을 추진하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만남도 이른 시일 내에 할 예정이다. 또 지방 경제 행보도 계속 이어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에 나온 16명의 현장 견의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실히 공식 답변하기로 하고 장관 이름으로 견의자에게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이울러 간담회 전 받은 무기명 사전질문 30건 중 12건은 현장 질문에서 소화돼 나머지 18건에 대한

답변은 대한상의에 보내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 답변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보여주기식 쇼”라며 “기업규제를 풀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론을 박제처럼 고집한다면 기업인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업인의 견의사항에 대해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민 기자 lawsd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신이 주장하는 ‘20년 집권론’에 대해 “20년도 짧다.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썸’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했고 참여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했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이 무너지는 때는 1, 2년밖에 안 걸리더라”며 “20년도 짧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속 20년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선 “나는 그런 감정이 안 된다”며 “지난번 출마했던 분들과 새로 발굴되는 분들, 아직 노출이 안 됐지만 성장할 분들이 후보”라고 밝혔다.

이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관련, “인연을 맺은 게 거의 40년 됐는데, 농치거나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현정 기자 hj@

북미 고위급 회담 내일 열릴 듯

CNN “김영철-폼페이오 만날 것”... 2차 정상회담 세부사항 논의 美 전략, 완전한 비핵화→ICBM 폐기... 남북 경협 재개 실마리

북미 고위급 회담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중간 단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은 16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워싱턴DC를 방문해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김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은 지난해 5월 말 뉴욕 고위급회담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며 세부 의제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인편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 회담에서 추가 답신 성격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최선희 북한 외

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특별대표가 1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고위급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ICBM 폐기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여 북한의 입장 여하에 따라서는 미국이 종전 선언이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건 대표는 최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미국민들의 안전이 목표”라고 완전한 비핵화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다.

‘ICBM 폐기-상응조치’ 교환 가능성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접근 방법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며 “포괄적 합의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이지만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야4당, 1월 임시국회 소집 야4당 원내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장병완 민주당, 윤소하 정의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스시스

‘목포 투기 의혹’ 제기에 손혜원 “SBS 고소”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집 9채를 매입한 것을 놓고 투기 의혹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SBS는 15일 손혜원 의원 가족 및 지인 등이 목포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미리 건물들을 사들였고, 이후 건물 값이 4배 정도 올랐으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손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제강점기 건축물이 남아 있는 곳이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문화재

제안했고, 조선내화건물이 근대산업유산으로 지정됐다”며 “그것은 이 지역(건물을 산 지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그 거리, 동네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해서 참 의아했다”며 “문화재청과 문화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저는 제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걸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SBS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제안 정동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정동영 민주당 당 대표는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7구 중위소득인 월 461만3536원에 맞추겠다. 예산 절약을 넘어 특권형 의원에서 시민형 의원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은 선거제 개혁에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 5당 합의에서 출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 합의안 도출을 1월 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동네 편의점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안녕?

“우리동네를 지키는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이 되어주세요”

가벼운 인사처럼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동학대예방 아동이 행복한 우리동네, 주위를 살피는 당신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해 넘긴 공공기관장 추천제... 추천권 놓고 시끌

현재 제도 우수인재 발탁 막아 내정설로 지원 포기 사례 속출 낙하산 '절차 정당성' 확보 수단 '학계·전문가 등 추천 방식 오픈'

지나해 하반기 예정됐던 공공기관장 추천제 도입이 올해로 미뤄졌다. 추천제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한다는 원칙은 정했지만, '누가' 추천할 것인가를 놓고 입장이 갈리고 있어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장 추천제 도입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을 뽑을 때에는 공개모집과 추천 중 한 방식을 택하거나 두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단 기관장 모집 시에는 공개모집만 하거나 두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추천 방식을 단독으로 택할 수 없고, 두 방식을 병행해도 공개모집 중심으로 기관장 후보가 모집돼 공모제 단독 운영이나 마찬가지로 한다.

하지만 현재의 공모제는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인사 투명성 강화와 낙하산 인사 방지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실질적으로 우수 인재 발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변질돼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력규모로 전체 공공기관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한 공기업은 공모를 해봐야 두세 명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대부분 소위 '깜'이 안 되는 사람

들"이라며 "공모제는 본인이 지원해야 하는데, 떨어지면 '망신'으로 받아들여져 저명한 분들이나 우수한 분들이 오히려 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개모집을 앞두고 정권 유력인사 내정설이 떠돌면 다른 지원자들이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공모제가 낙하산 인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에 대한 소고(허경선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명시된 임원선임제도 규정에는 실제 발생하는 정치적 영향력과 정부의 영향력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며 "이제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고,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천제를 확대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다. 현재까지 논의에선 공공기관장 인사시 추천제 단독 운영을 허용하되, 각 기관에 선택권을 준다는 큰 방향만 정해졌다. 관건은 기관장 후보자를 누가 추천하느냐다. 인사제도 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침상으로는 관련 단체나 인사혁신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추천이 가능하다"며 "이외에도 관련 학계나 전문가 단체 등 여러 방식을 열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요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홍 부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전경련 패싱 아냐"

'기업인과의 대화' 제외 해명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패싱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년회에 초청받지 못한 데 이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도 제외됐

다. 이날 진행된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전경련은 참석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시점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있다"며 "나중이라도 전경련을 방문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늘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확대문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같이 논의했지만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단체장들에게) 의견을 드렸다"고 소개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김영춘 "낙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여부 불시 단속"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낙시어선을 불시 단속하고 위치발신장치를 봉인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북한 항구의 현대화를 위한 기초조사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낙시어선들이 아직도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을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또 "낙시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영업구역을 벗어나서 낙시하거나 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치발신장치를 봉인조치 하는 등의 관련 법규를 고지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올해 북한의 항구 현대화를 위한 기초조사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탄력근로제·ILO 협약 딜할 사안 아니다"

문성현 위원장 "노동계, 탄력근로제 하되 건강권·임금보존 요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탄력근로제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은 개별 사안이지 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논의를 끝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ILO 핵심 협약과 탄력근로제 '사회적 빅딜'을 언급한 데 대해 문 위원장은 "개별사안으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어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딜이 나오는 것은 둘 다 2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6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임시국회에서 정리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경영계에서는 1년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로는 탄력근로제를 하되 거기에 따른 건강권이나 임금보존 등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LO협약 비준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다만 경영계에서는 협약을 비준하는 대신 단체협상의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파업기간 중 노조의 공장점거 행위 등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의결할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완전체로서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위해서와 격차 해소 문제와 연동된 산업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하려면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다음 달 경사노위 산하에 '양극화 해소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다양한 분야의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1,0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DB금융이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 DB금융투자
- DB생명
- DB캐피탈
- DB자산운용
- DB저축은행



“ 내 곁에 DB금융이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DB금융네트워크

<p>국내 손해보험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회사 - DB손해보험</p>	<p>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회사 - DB금융투자</p>	<p>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우량저축은행 - DB저축은행</p>
<p>고객이 신뢰하는 우수한 성장률의 보험회사 - DB생명</p>	<p>수익률과 안정성을 지닌 종합자산운용회사 - DB자산운용</p>	<p>대한민국 여신금융의 리더 컴퍼니 - DB캐피탈</p>

“노 딜만은 막자”... 英, 브렉시트 ‘7월 연기안’ 유력

英 하원서 사상 최대 표차 부결 기준대로라면 3월말 ‘EU탈퇴’ 여야·강경파 모두 “연기” 공감대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문 승인투표가 부결되면서 향후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린다. ‘노 딜 브렉시트’보다는 기존에 3월 말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기일을 7월로 연기하는 방안 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오후 7시경 영국 하원에서 정부와 유럽연합(EU)의 EU 탈퇴협정 합의문 승인 여부를 투표한 결과 230표 차로 부결됐다. 제1야당인 노동당과 현 집권당인 보수당의 강경파 등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터라 부결은 예상된 결과였지만 200표가 넘는 차이로 정부가 의회에서 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 투표가 부결되자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

합의안에는 2020년 말까지 영국이 EU에 머물면서 추가 협상을 진행해 완전한 탈퇴하게 되는 ‘과도기’ 조항과 영국이 EU에 지불하는 위차료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야당은 브렉시트 자체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며 보수당 내 강경파는 현 합의안이 ‘굴욕적’이라며 전면적인 EU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

투표 후 노동당은 테리사 메이 총리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16일 오후 7시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절반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메이 정권은 퇴진·해산하고 총선 정국에 돌입한다.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

하고 반대표가 모였지만, 메이 정권에 대한 불신임안에는 쉽게 의견이 모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이 총리가 퇴진하고 노동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 결정 자체를 되돌리는 방향을 택할 수 있어서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메이 총리에 대해 불신임안 투표를 주도한 북아일랜드민주당(DUP)과 보수당의 강경파 그룹도 현재 정국에서는 총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딜 브렉시트나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라는 불확실성의 양극단을 피하지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 후 “하원이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은 것은 알겠으나 그렇다면 무엇을 지지한 것이냐”며 “정부는 건설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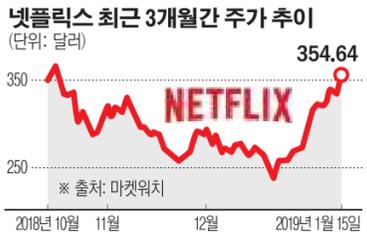
영국 정부는 21일까지 EU와 다시 협상해 새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 브렉시

트 기일은 3월 29일로 아직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 영국 여야는 물론이고 EU 역시 노 딜 브렉시트만은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브렉시트 기일을 뒤로 미루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된다.

니혼케이자이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메이 총리가 6월 EU 정상회의 이후인 7월까지 영국의 EU 탈퇴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와 파운드화 가치가 모두 상승하는 등 시장이 안정적 반응을 보인 것 역시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표결로 노 딜 브렉시트 위험이 커졌다”며 “원치 않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넷플릭스 “美 이용료 ↑” 12년 만에 최대폭 인상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자사 최대 시장인 미국과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 요금을 13~18%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요금을 네 차례 인상했는데, 2017년 말에 올린 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번 인상폭은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난 지 12년 만에 가장 크다.

이에 따라 기본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은 월 7.99달러에서 8.99달러로 인상됐고,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은 13.99달러에서 15.99달러로 올랐다. 표준 요금제로 볼 수 있는 월 12.99달러짜리 요금제는 경쟁사 훌루의 무(無)광고 요금제보다 1달러 비싸지만 HBO 나우의 14.99달러보다는 저렴하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즉시 새 요금제가 적용되며 기존 고객은 3개월에 걸쳐 점차적으로 적용한다.

서비스 요금 인상 소식에 이날 넷플릭스 주가는 6.5% 급등세로 장을 마쳤다. 넷플릭스 주가는 올 들어서만 약 33% 폭등하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의 마크 매허니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의 이번 조치는 회사 성장 동력이 더 많은 연료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확대를 위한 새로운 채용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훌륭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넷플릭스 경험 전반의 개선을 지속하고자 때때로 요금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자체 콘텐츠 제작에 약 130억 달러(약 14조 6094억 원)를 지출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9월 기준 넷플릭스가 가입자는 1억 3700만 명이며, 그중 미국 고객만 5800만 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4분기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900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케냐 도심서 폭탄·총격 테러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고급 호텔 복합단지에서 15일(현지시간) 총격과 폭탄 테러가 발생. 군인들이 총알 자국이 난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번 테러로 최소 5명 이상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다. 나이로비/AP뉴스

입 연 화웨이 창업주 “中 스파이짓 안 해”

‘5G 안보’로 최악의 위기 맞은 런정페이... 4년 만의 첫 간담회에서 정부와 선 그어

국가안보 위협으로 서구권 국가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으며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놓인 화웨이의 런정페이(74) 창업자가 4년 만에 침묵을 깼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중국 선전의 화웨이 캠퍼스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런정페이가 해외 언론과 공식 간담회를 가진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이날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화웨이의 미래, 차세대 이동통신인 5G와 안보를 둘러싼 문제, 딸인 명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문제 등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털어놓았다.

런 CEO는 먼저 안보 우려에 대해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외국 고객이나 통신망에 대한 비밀정보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요청에는 단호히 ‘노(No)’라고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런정페이 창업자 겸 CEO가 15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선전 본사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 도중 웃고 있다. 선전/AP연합뉴스

“화웨이는 지난 30년간 170개국에서 30억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우리는 좋은 보안 기록을 갖고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인민해방군 출신이어서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이 끊임없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화웨이는 독립적 기업체이며 우리는 사이버 보안과 사생활 보호에

있어서 고객 편에 서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떤 국가와 개인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당국이 체포한 장녀 명완저우와 관련해 런정페이는 “아버지로서 딸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며 “캐나다와 미국 사법 시스템이 개방적이고 공정하다고 믿는다. 모든 증거가 공개된 후에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은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웨이를 차단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부 고객은 화웨이를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수 국가가 더는 화웨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 장비에 만족하는 국가들로 초점을 전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가운데 있다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화웨이는 함께 싸어 불과하다”며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커다란 세력 사이의 갈등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카를로스 곤 장기구금에 佛 르노 CEO 교체 준비

프랑스 르노자동차가 20일(현지시간) 신경영체제를 발표한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카를로스 곤(사진)의 일본 내 구금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서둘러 후임 인사를 발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니혼케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차기 회장직은 프랑스타이어 업체 마세린의 장 도미니크 세나르 CEO가 유력하며, 차기 CEO는 현재 곤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티에리 블로레 부CEO와 도요타자동차의 디디에 르로이 부사장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닛산자동차의 회장이기도 한 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르노와 대주주인 프랑스 정부가 새로운 경영 체제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전날 도쿄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곤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19일 첫 체포 이후 2개월 가까이 구금돼 있는 곤의 장기 경영 공백 우려가 커진 상태다. 곤 측 변호인은 곤 회장의 공판이 시작될 때까지 적어도 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보석 청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일본 검찰은 11일 곤을 회사법 위반(특별배임)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추가 기소, 변호인은 당일엔 즉각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8일 열린 구류 사유 공개청구 절차에 의해 법정에서 나온 곤은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닛산과 미쓰비시자동차는 각각 회장직에서 곤을 해임했지만 르노는 지금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곤의 지위를 유지했다.

한편, 르노와 프랑스 정부는 닛산이 후임 인사에 반대해 양사 간의 동맹 관계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 출신인 마르탱 비알 이사를 일본에 보내 사전에 설명하기로 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눈사람은
I am your Energy야

핑핑핑 함박눈 내리던 날,
 온가족이 모여, 다같이 만들던 눈사람.
 비록 눈코입은 제각각이지만,
 즐거운 작품 하나 만들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어제의 그런 훈훈한 추억이 모여,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I am
your
Energy



2018 국가고객만족도(NCSI)
주유소 부문 10년 연속 1위



신한家 된 오렌지라이프... 마지막 과제 '화학적 결합'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합병안
 킷스·새 회계제도 도입 대비
 정문국 사장 주도 속도 가능성
 성격 다른 조직 간 내홍 우려
 "일정기간 별도 자회사로 운영"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당기순이익	1224	2651
총자산수익률 (ROA)	0.54	1.11
자기자본이익률 (ROE)	9.14	9.66
지급여력비율	201	438
주력상품	중신·정기·암	중신·변액
임직원 수	1274	744

※ 지난해 3분기 기준 ※ 출처: 생명보험협회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합병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오렌지라이프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정문국 신한생명 사장(내정자)의 주도로 인수 후 통합 작업(PMI)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오렌지라이프의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두 회사의 고객층과 주력상품, 판매 채널이 달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며 "보험업계의 판도를 바꿔 '톱3'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자산을 합치면 63조6000억 원에 달한다. 업계 4위인 NH농협생명(64조4400억 원)과 1조 원도 채 차이가 안 난다. 실적개선도 기대된다. 지난해 3분기 회사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3875억 원이다. 업계 2위인 한화생명(3854억 원)보다 많다.

특히 두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겹치지 않아 시너지가 기대된다. 주력 상품 부문에서 신한생명은 종신보험과 정기, 암보험에

이 기대된다"며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등에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이슈 속에서 합병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지만, 여전히 큰 산 하나가 남아있다.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오렌지라이프는 오랫동안 외국계 자본에 속해 있었고, 지금도 애자일(agile·민첩함)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신한생명은 위계질서가 분명하다. 무리하게 두 조직을 합칠 경우 내홍이 생겨 시너지는 커녕 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일정 기간 그룹 별도의 자회사로 운영해 각자가 가진 고유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그룹 편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도입되는 새 회계제도(IFRS17)와 킷스(K-ICS) 등에 대비해 통합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오렌지라이프의 보험금지급여력(RBC) 비율은 438%로 업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신한생명은 201.4%에 머물고 있어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생보사 관계자는 "오렌지라이프 조직 문화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 사장(내정자)이 신한생명 수장 자리에 오른 건 조기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조 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정 사장이 정식 취임하는 3월부터 PMI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한이헌 前 국회의원 박재식 前 한국증권금융 대표 남영우 前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종후보 한이헌·박재식·남영우 확정

21일 회원사 투표 통해 선출
 네거티브 등 과열선거 변수로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종 후보에 한이헌·박재식·남영우 후보가 확정됐다. 1차 심사를 통과한 3인 전원 최종 투표를 치르게 됐다. 차기 회장은 21일 79개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사 투표를 거쳐 선출된다. 하지만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과열 선거전이 벌어지는 등 중앙회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최종 투표 전까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회장 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날 면접에서 한이헌 전 국회의원과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대표,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4일 1차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 전원이다. 애초 단수 또는 복수 후보가 추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1차 심사를 통과한 후보 3인 모두가 최종 선거에 진출한 것은 이례적이다.

역대 최다 후보가 참여한 이번 선거는 그 후유증을 제대로 앓고 있다. 후보 선출과정에서부터 '네거티브 선거'가 벌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같은 날 저축은행 노조는 일부 회원사 대표가 회장 후보자에게 저축은행중앙회 임직원 연봉 삭감과 인사개입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일부 회원사 대표가 회장 후보자에게 임직원의 연봉을 삭감하고 회장 고위권인인 중앙회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를 후보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회추위를 전면 재구성하고 21일 회장 선출 총회를 즉각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면 노조는 전날에도 "특정 후보는 과거 독단적 경영과 직장 갑질 등 구설과 의혹이 제보되고 있다"며 후보 적정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전례 없는 '진흙탕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의 원인으로 치열한 선거전을 꼽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에 앞서 (후보자 선출 과정부터)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돌입한 것 같다"며 "이전까지 (중앙회장 선거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후보군이 쟁쟁하다 보니 현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Fintech, 금융이 바뀐다'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규제 풀어 '글로벌 핀테크 기업' 탄생 집중 지원"

금융위 핀테크 현장간담회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적 실험을 집중 지원한다.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함께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의 과감한 시도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은 이달 21~31일 사전 신청을 받는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회사에 '혁신전담 매니저(금융위 사무관)'를 지정해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약 100여 개 핀테크 기업에 예산 40억 원을 투입한다.

핀테크와 자본시장의 연계 등 핀테크 투자도 확대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령 또는 전자금융거래법령 등을 개정해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을 해소한다. 150억 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펀드, 9조 원 규모의 금융권 혁신투자펀드 등 대형 투자자본이 핀테크에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힘을 계획이다.

넓은 규제도 혁파한다. 금융·비금융 융

합과제, 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 과거 유권해석 등도 재검토 대상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구상한 핀테크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는 약 200여 건의 규제개선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주 금요일 '핀테크 현장 금융미팅'을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맞춤형 인력·공간도 확충한다. 신기술과 융합 역량이 요구되는 핀테크 맞춤형 창업정년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핀테크 지원센터(판교·마포), 디랩프(선릉), 마포 청년혁신타운(내년 5월 완공)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저축銀 'QR코드 결제' 스타트

48개 저축은행 체크카드의 QR코드 결제 서비스가 16일부터 실시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BC카드 간편결제 플랫폼페이북을 통해 OR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GS25와 이마트24, 다이소 등 15개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번 결제 서비스에는 가

맹점이 스캐너로 인식하는 CPM방식과 고객이 가맹점의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하는 MPM 방식 모두 적용된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맞춰 31일까지 저축은행 체크카드가 등록된 페이스북 QR결제로 GS25 샌드위치 구매 시 50% 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 다음 달 28일까지 500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1500원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금융실명제 손본다

▶1면서 계속

금융위가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금융실명제가 비대면 영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흐름과 다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대학교 학생증 체크카드 발급이나 급여통장 등 신규 계좌를 대량 개설할 때 은행에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제한돼 있어 대응이 늦어지기도 한다. 결국 고객은 비대면이 아닌 직접 영업점에 방문할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금융실명제법이 아예 사라지면 비대면 영업을 굉장히 편해진다"며 "인증 수단을 줄이는 대신 비실명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작용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들도 "금융실명법 개정은 필

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스 등 간편결제 송금업체는 해외 송금을 해도 고객 계좌정보가 없어 송금할 때마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들 업체를 금융기관 범위에 넣거나 금융실명법을 바꾸거나 없애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규정도 일부 손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OTP나 지문 등 접근 매체 발급 시 관련 감독규정에 따라 신분증 등 실명 확인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휴대전화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이 가능해진다.

관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간편 본인 확인 방식을 하려고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카드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카드사 관계자는 "생체인증을 통한 간편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명 확인을 간소화하는 게 카드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재계 “경영 자율성 침해 넘어 연금 사회주의 신호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우려 280개 기업 지분 5% 이상 보유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뜻” 소액주주, 국민연금 편들 가능성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경영 자율성 침해’,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연금사회주의’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한진그룹 경영 참여를 둘러싼 주주(조양호 일가·KCGI·국민연금 등)들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민연금의 최고이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위가 대한

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주권 행사 이행 여부와 방식을 2월 초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이번 주주권 행사는) 앞으로 개별 기업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한 국경영자총협회 또한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엔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계는 지난해 스톱워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개별 상장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 방향을 논의한 것이 처음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 국민연금의 이번

주주권 행사가 ‘연금사회주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의 국내 기업은 3%를(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에 묶여 대주주의결권을 제한받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국내 기업 수가 280여 개에 달한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지배구조포럼이 이날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톱워드십 코드는 공적연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

계가 있는데 국민연금 스톱워드십 코드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황 수석연구원은 특히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고 당연직 위원 4명이 주부처 차관인 상황에서 독립성 확보 방안 없이 스톱워드십 코드를 활용한다면 국민연금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민연금법 제102조 2항에서 국민연금이 최대 수익을 획득하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가치를 위해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개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2025년에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9%를 가질 것이라는 전망인데,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

민연금이 기업경영에 개입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결정에 따라 한진그룹 주주들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모펀드인 KCGI의 경우 우선 국민연금의 움직임을 관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양호 회장과의 표 대결에 앞서 국민연금과의 동맹이 유력히 접쳐지는 가운데, 경영 참여의 실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호 지분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상황은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과 한진의 소액주주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KCGI 혹은 국민연금 편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 대해 “지금 상황에선 어떤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한국 대형 SUV, 美 가면 중형?

국내 대형 SUV 시장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와 기아차가 출시할 텔루라이드가 올해 북미시장에 진출한다. 국내에선 대형급이지만 현지에선 중형 SUV로 취급받는다. 왜 그럴까?

16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지난해 말 출시한 팰리세이드를 올해 3분기 북미시장에 선보인다. 텔루라이드도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두 모델은 현지에서 △포드 익스플로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쉐보레 트래버스 등 중형 SUV들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는 국내에서 대형 SUV라고 하지만 북미에선 중형급이다. 보다 크고 배기량이 높으며 가격이 비싼 대형 SUV들이 북미에 즐비하기 때문이다.

국내 승용차 등급은 승용과 SUV를 막론하고 배기량과 차 크기가 기준이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보면 승용차 등급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과 차 길이 3.6m가 기준이다. 기아차 모닝과 레이, 쉐보레 스파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같은 엔진을 얹은 기아차 소형 SUV 스톱닉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지만 차 길이가 3.6m를 초과하기 때문에 경차 혜택을 못 누리고 소형차로 분류된다.

배기량 1600cc 미만은 소형차, 1600~2000cc는 중형차다. 그 이상은 대형차로 구분한다. 흔히 준중형과 준대형 등은 완성차 메이커가 마케팅 전략에 따라 구분한 기준에 불과하다.

국내 대형 SUV 시장에 뛰어든 팰리세이드는 2.2 디젤과 함께 소수이지만 V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

韓 배기량 2000cc 이상 대형 美 6000cc급 많아 중형 취급

63.8리터 가솔린(텔루라이드 포함)도 팔린다. 디젤 배기량은 아랫급 싼타페와 동일하지만 가솔린 엔진은 싼타페(2.0 터보)를 크게 앞서는 대형 SUV 반열에 올라선다.

반면 북미에서는 팰리세이드의 차 크기와 배기량, 가격을 뛰어넘는 차들이 널려 있다. 빅3로 통하는 포드와 GM, 크라이슬러의 대형 SUV는 V8 엔진에 6000cc를 넘나드는 거대 배기량을 자랑한다. 북미에 대배기량 차들이 많은 이유는 세금이 적고 기름값이 싸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이 급부상하기 전까지 미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었다.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사는 만큼 지역별 특색보다 다양성 자체가 시장 특징”이라며 “국제유가 변동에 허덕일 필요가 없었던 만큼 모자라는 엔진출력을 대배기량으로 만회해온 덕에 우리 시장보다 배기량이 큰 차들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싱가포르서 ‘그랩’ 호출…현대차가 달려왔다

〈코나 EV〉

공유차 ‘모빌리티’ 첫발

동남아 1위 차량 호출앱 협력 전기차 200대 연내 공급

지난해 그랩에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자한 현대자동차가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을 싱가포르로 결정했다.

현대차는 16일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인 그랩을 통해 ‘코나 일렉트릭(EV)’을 활용한 호출 서비스를 싱가포르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남아에서 전기차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이번 서비스 론칭을 위해 그랩에 코나EV 20대를 공급했으며, 그랩은 연내 총 200대의 코나EV를 구매할 계획이다. 그랩은 코나EV 20대 모두 소속 운전자에게 대여를 완료했으며, 이들은 현지 고객에게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낸다. 그랩은 초기 보조금을 위해 코나EV 하루 대여금을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하루 대여금액과 크게 차이가 없는 80싱가포르달러(약 6만6000원)로 책정했다.

코나EV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유류비 절감 △짧은 충전시간 등 다양한 경쟁력도 인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나EV는 1회 충전으



카우이 밉 그랩렌탈 싱가포르 대표가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로 4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어 그랩 드라이버들의 일일 평균 운행거리(200~300km)를 충족한다. 또 급속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30분 이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대차는 싱가포르 전력 공급 업체인 싱가포르 파워 그룹과도 협력해 그랩 드라이버들이 30% 저렴하게 차량을 충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는 그랩, 싱가포르 파워와의 협업을 통해 동남아 전기차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해 혁신기업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3사는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충전 인프라, 주행거리, 운전자 및 탑승객 만족도 등을 분석해 전기차 호출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과 사업

성을 타진한다. 현대차는 향후 전기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로 확대 나갈 방침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그랩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 원)를 투자하며 전기차 기반의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인도 카세어링 업체 ‘레브’, 미국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미고’ 등 글로벌 차량공유 기업들과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공급 업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한화종합화학 태양광사업 지지부진

“1700억 투자 계획 중 1억만 집행”

지난해 한화종합화학의 태양광 발전 투자 금액이 당초 계획의 2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종합화학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한화솔라파워와 한화솔라파워글로벌에 지난해 총 25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출자한 금액은 521억 원에 그쳤다.

한화종합화학은 한화솔라파워에 800억 원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출자할 계획이었지만 520억 원만 출자했다. 한화솔라파워글로벌에는 17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출자한 금액은 단 1억 원이었다. 한화종합화학은 “지난해 이사회를 통해 두 회사에 대한 출자 예정 금

액을 포괄 의결했으나 거래금액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종합화학은 한화솔라파워와 한화솔라파워글로벌을 통해 각각 국내·외 태양광발전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화솔라파워는 국내 발전소 건설과 수주, 운영을 담당하고 한화솔라파워글로벌은 북미 등 해외 발전 시장에 투자를 진행한다.

이 같은 투자 축소는 지난해 태양광 시장이 중국 보조금 삭감과 미국 셰이프가드 조치 등으로 위축되면서 태양광발전 시장의 성장세가 한풀 꺾인 탓으로 풀이된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3분기 신규 태양광 설비용량은 1.7GW로 1분기보다 20%

이상 감소했다.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설비 설치 규모도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아울러 한화종합화학은 2017년 말부터 충남 당진 석문호에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소 투자 규모도 내부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종합화학은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석문호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계획 아래 2020년까지 3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출자액은 11억 원에 그쳤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 태양광발전소는 중국 안후이(安徽)성에 있는 40MW 규모의 발전소이지만, 석문호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며 약 14만 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전기량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된다.

이와 관련 한화종합화학 관계자는 “변동은 있으나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OCI파워, 인버터 제조사 영업 양수

OCI의 자회사 ‘OCI 파워’가 센트럴 인버터 제조 회사인 ‘카코뉴에너지’의 영업 양수를 통해 급성장하는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OCI는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 OCI 파워가 독일 KACO new energy GmbH 자회사 카코뉴에너지의 영업 양수와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로써 OCI는 기존에 영위해온 태양광 발전사업 솔루션에 이어 인버터, 파워컨디셔닝시스템(PCS) 등 제조업 기술까지 확보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변호선 기자 hsbyun@

현대차, 설 명절 250대 ‘무상 렌탈’

현대차는 설 명절을 앞두고 총 250대의 귀성 차량을 설 연휴 기간 무상 대여해주는 ‘설 명절 7박 8일 렌탈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벤트 당첨 고객을 대상으로 아반떼, i30, 벨로스터, 쏘나타, 그랜저, 코나, 투싼, 싼타페 등 250대의 차량을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7박 8일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23일까지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시승을 원하는 차종, 지역을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당첨자는 29일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폴더블·롤러블·히어러블... '다 되는' able 시대

가전부터 車까지 '4차 산업혁명' 단순 기능으로 눈길 끌기 어려워 혁신적 편리성으로 소비자 유혹

폴더블(foldable), 롤러블(rollable), 스트레처블(stretchable)까지, 이른바 'able(에이블)의 시대'다. 'able'은 '할 수 있는'을 뜻하는 접미사다. 최근 몇 년 동안 핫이슈였던 웨어러블(Wearable)은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 잡았고, 히어러블(hearable)이란 용어도 등장했다. 단순 기능을 갖춘 제품에는 더 이상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자, 기존 제품에 혁신적인 편리성을 강화한 '~able' 제품 물결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10주년 기념작 갤럭시S10과 함께 폴더블 폰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공개를 앞두고 '스마트폰 폼팩터(form factor·제품 구조 형태)' 부문의 혁신을 강조했다. 폴더블은 폼팩터 혁신의 초기 단계이며, 둘둘 말리는 롤러블 또는 화면 변형이



화면을 말거나 펼 수 있는 세계 첫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 이 제품은 벽면 앞에 설치하던 기존 TV와 달리 대형 유리창 앞, 서재 책장 앞 등 고객이 원하는 장소 어디에나 두고 활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가능한 스트레처블 기기도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비주요개발팀장 김학성 전무는 16일 자사 뉴스룸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신기술이 일상에 가까워지면서 스마트폰의 가능성이 더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폴더블폰 출시와 관련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고, 수십만 번을 반복해도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접었다 펼 수 있도록 혁신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기구 기술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막을 내린 CES 2019에서는 LG전자 롤러블 TV가 큰 화제였다. 롤러블 TV

화면이 네모난 상자에서 스르륵 나오는 장면은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제품은 벽면에 위치하는 일반적인 제품들과 달리 원할 때만 TV 화면을 노출시킨다.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TV 시대를 열게 해 준 것이다.

웨어러블은 크기를 더 줄이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그 중심에

히어러블 기기가 존재한다. 다양한 활용 원리가 등장하면서 스포츠 코칭, 자동차 운전, 산업 영역까지 쓰임새가 많아졌다. 먼저 야구와 같은 단체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작은 이어폰을 단단히 걸어놓으면 코칭스태프의 실시간 코치를 받을 수 있다.

산업 현장도 영도 확장 대상이다. 작업 인력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이들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재배치할 수 있다. 위험 상황이 닥치면 자동경보 시스템을 통해 경고와 탈출 지지도 즉각 내릴 수 있다.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고주파를 이용해 공장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능도 개발 중이다. 기기 본연의 기능에 따라 통역사 없이 외국인과의 실시간 대화도 가능해진다. 안전운전에도 활용된다. 히어러블 기기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에서 보듯 요즘 소비자들은 파격적인 수준의 혁신이 아니면 선풍구 구매에 나서지 않는다"며 "각 업체들은 상상 속 제품을 현실화하는 데 전력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김준형 기자 junior@

UNIQUEMI
제주 방림원
화산송이동굴 100일 발효
Uniquemi Premium Mask

자연의 힘으로 피부를 다스리다

Uniquemi Premium Mask

유니크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선유도 코오롱디지털타워 www.uniquemi.co.kr 고객센터 : 1577-9536~7



삼성 '중동 최대' 두바이 체험매장 열어
삼성전자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이어 15일(현지 시간) 두바이의 두바이몰에 삼성전자 전 제품을 판매·체험하는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Samsung Experience Store)'를 열었다. 두바이몰은 연간 1억 명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쇼핑몰로 삼성전자는 단순한 제품 전시가 아닌, 제품 간 연동 서비스를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도록 매장을 구성했다. 이 스토어는 915㎡(300여 평) 규모로 삼성전자 제품 판매 매장으로는 중동에서 가장 크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공기청정기야? 에어컨이야?

'공기 청정' 에어컨 출시 경쟁
삼성, 빅스비 장착 자동 정화
LG, 관련 모델 24개로 확대



'LG 휘센 씽큐' 에어컨. 사진제공 LG전자

최근 날이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공기청정 기능을 강화한 에어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17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서 소비자가전(CE) 부문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 브리핑 행사를 열고 냉방·공기청정 기능이 모두 강화된 '무풍 에어컨' 출시 계획을 밝힌다. 신제품은 실내 미세먼지 상태를 감지해 자동으로 청정 운전을 하는 기능이 강화됐다. 또 스스로 학습하고 작동하는 AI(인공지능) 기능과 음성인식 플랫폼 '빅스비'가 기본으로 장착됐다.

LG전자가 같은 날 출시하는 에어컨 신제품 '2019년형 LG 휘센 씽큐'는 청정면적이 중전보다 6.6㎡(2평) 더 넓어져 최대 66.1㎡(20평) 공간의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에어컨 모델 수도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24개로 대폭 늘렸다. 신제품은 아주 작은 극초미세먼지까지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PM1.0 센서를 장착했다. 센서

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간편히 청소할 수 있도록 제품의 측면에 센서를 배치해 사용자를 배려했다.

신제품에는 △큰 먼지와 작은 먼지를 제거하는 '극세필터' △황사와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초미세미니필터' △극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초미세플러스필터' △먼지를 끌어모아 먼지 제거 성능을 강화하는 '집진이오나이지' 등 4단계 공기청정 전문 필터가 장착됐다. 색상으로 실내 공기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청정 디스플레이도 장착됐다.

대우위니아는 이달 하순에 신제품 에어컨 발표회를 개최한 뒤 정식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신제품은 사람에게 찬바람을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돌레바람' 기능을 강화했다고 한다.

송영록 기자 syr@

#EARLY_SPRING

셀럽샵 에디션의 '조금 특별한 휴식'을 위한
니트 라운지웨어 컬렉션



CelebShop edition

1/19(토) 10:20 AM C오쇼핑 www.Cjmall.com

“세계 유일 원천기술 지키려 직접 회사 차렸죠”

인터뷰

신동성 지엘텍 대표

“정밀 주조 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다. 시장 전망도 밝고, 중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다만,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 중국에 시장이 잡히면 뿌리 산업 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신동성(51) 지엘텍 대표는 미간에 짙게 주름을 만들며 진지하게 말했다. 신 대표가 이끄는 지엘텍은 세계 최초 독점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2015년 국내에서 특허를 낸 ‘칼라캐스트’라는 이 기술은 메탈 제품 제작과 색칠, 2단계 과정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한 공정을 뜻한다. ‘세계 최초’라는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짊어진 신 대표를 6일 경기도 안산 지엘텍 공장에서 만났다.

신 대표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대학 졸업 후 자동차 고무 부품 관련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건축업에도 몸담았다. 그 뒤 2004년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같은 금속 기구물을 생산하는 ‘지케이’에 입사했다. 지케이에서 기술 전문이사까지 올라간 그는 2013년 지금의 칼라캐스트 기술

휴대폰 케이스 등 알루미늄 피막처리·도색작업 동시에 ‘칼라캐스트’ 세계 첫 개발

모기업 부도에 기술 사장 위기 기계 6대 인수 ‘지엘텍’ 창립 국내 대기업 계약 매출 상승세

을 개발해냈다. 기술 개발자인 신 대표와 그의 동료인 연구부장은 함께 특허를 냈다. 장맛비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2015년 10월 5일, 모기업이 부도가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 대표는 4년여간 청춘을 바쳐 개발한 기술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 직접 기계 6대를 인수하고, 지엘텍 창립에 나섰다. 지케이의 6611㎡(2000평) 부지가 661㎡(200평)로 줄어들었지만, 신 대표는 자신 있었다. 그 자신감은 특허 등록된 칼



신동성 지엘텍 대표가 칼라캐스트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샘플들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라캐스트 기술에서 비롯했다. 지엘텍을 있게 한 칼라캐스트 기술을 설명해 달라고 하자 신 대표는 “난해한 기술”이라고 운을 뚫었다. 그의 말처럼 낯선 전문 용어가 따라붙는 기술이지만 스마트폰 케이스, 화장품 용기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제품들에 녹아든 기술이기도 하다. 알루미늄 위에 피막 처리(공기 중에 산소를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를 ‘아노다이징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술과 색을 입히는 기술을 한꺼번에 하도록 한 것이다. 신 대표는 칼라캐스트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다. 그는 전 세계에서 최초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에서 따라한다고 해도 지금은 원천 기술의 50% 수준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신 대표는 2016년 칼라캐스트 기술을 중국에서도 특허 출

원을 냈다. 지엘텍은 현재 6개 기업에 칼라캐스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매출은 재작년 기준 8억 원가량이었다. 지난해는 9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기업과 올해 부품 계약을 끝내 올해 4월부터 양산에 들어가면 매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누적 투자액은 4억6000억 원이다.

신 대표는 지엘텍뿐 아니라 정밀 주조 산업의 전망이 밝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내만 2000억 원이 넘는 시장”이라며 “다만 아쉬운 점은 소위 3D(Difficult·Dirty·Dangerous)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인력난을 타개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벤처기업의 대표가 된 신 대표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했다. 그는 “창업 후 알고 보니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 제도가 매우 잘돼 있더라”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창업을 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자기 길이 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KT 화재’ 국회 청문회 열린다

과방위 “항창규 회장 등 관련자 불리 책임 묻겠다”
黃 “협의체 통해 추가 보상”



황창규 KT 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 답변이 미흡하고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황 회장을 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세워 책임 소재를 따져 묻겠다는 의도다.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황 회장을 상대로 아현국사 화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 책임과 피해 보상 방식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두 달이 지났는데도 원인 규명과 제대로 된 보상이 나오지 않은 점을 들며 KT와 과기정통부 모두 책임 규명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현지사 관리 미흡과 피해 보상, 법적 책임 등에 대해 황 회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간사 협의를 통해 아현 화재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황 회장의 무책임한 답변

과 관리 감독기관인 과기부의 안일한 대응을 이유로 조만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다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가 한창인 소상공인 보상에 대해 황 회장은 “통신료나 인터넷 이용료 감면의 경우 과거 유사 사고에 비해 약관을 훨씬 뛰어넘는 보상을 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추가 보상 문제는 보상협의체 의견에 따라 적극적으로·전향적으로 보상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도 빅데이터 자료가 있는 만큼 보상협의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데이

터를 공개해 보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또 “아현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보상은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KT는 화재 발생 이후 피해 지역인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등 총 68개 주민센터에서 소상공인 피해 접수를 받았으며 온라인 접수도 함께 진행해왔다. 하지만 피해 보상 규모를 둘러싼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커지자 15일 국회 및 관련 업계와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김병근 기자 nova@

전통시장 현대화 5370억 지원

지난해보다 1616억 늘어
전기설비 개선·주차장 확대

중소기업부가 올해 전통시장 육성 예산을 5370억 원 규모로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1616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이번 전통시장 지원책은 작년 12월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해 진행한다.

올해 지원책은 ‘지역밀착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복합청년몰 조성 등 지속 성장 가능한 상권 육성’ 등에 중점을 둔다.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해 왔던 사업 방식을 정책 수혜자인 상인이 주도하는 지원체제로 전환해 이들의 자재 역량과 자생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에서다.

우선 중기부는 20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확대하고, 올해 신규 건립된 45곳을 포함해 109곳의 시장을 지원한다. 또 시설현대화 사업에서는 ‘태양광 전력사업’, ‘게스트하우스’, ‘빈,점포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시장 내 신수익 창출 모델과 공유경제 확산 사업을 추진한

다. 아울러 화재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전기배선 및 노후한 장유형, 상가주택 복합형 시장 중심의 낡은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복합청년몰은 올해부터 입지 제한 완화, 신개념 복합청년몰 도입, 지역 커뮤니티 연계 강화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장 내에서 오픈상점가(예정지)로 입지 제한을 완화, 폐공장·농협창고·폐극장 등을 활용한 ‘테마형 청년상점가’ 조성을 지원한다. 또 청년 상인의 시장 안착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을 모집한다.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 고객 유입 증가에서 매출 증대, 지역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기보, 기술력 우수 저신용기업 ‘특별보증’

기술평가 A등급 이상 최대 30억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저신용기업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술성과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일시적 연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체대출금 보유·세금 체납, 기타 신용도 취약 등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기술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술력 우수기업이면 보증받을 수 있다. 당초 차입금 또는 조세공과금의 50%(창업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은 30%) 이상 상환한 기업은 평가등급을

BBB등급까지 완화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30억 원(연정 자금은 최대 10억 원)이다. 기보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보증 심사에 교수, 회계사 등 전문적 식견 및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기술·사업성, 연체 발생 사유, 상환 노력,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기보는 또 올해 30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 취약기업에 대한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기보 측 설명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코웨이, R&D센터에 ‘물맛 연구소’ 신설

“정수기 물맛 기준 정립”... 워터소물리에 등 45명 배치

“맛있는 물맛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16일 코웨이는 서울관악구에 있는 코웨이 연구·개발(R&D) 센터에 ‘물맛 연구소’를 열었다.

코웨이 물맛 연구소는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연구하고, 정수기 물맛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설립했다. 물맛 연구소에는 한국국제소물리에협회, 한국수

자원공사 공인 워터소물리에와 미국수질협회(WQA) 공인 물 전문가(CWS: Certified Water Specialist) 등 물 관련 전문 기술을 보유한 코웨이 연구원 45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코웨이는 “2009년부터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물맛 연구를 시작했다”며 “2011년에는 국내외 물맛 연구를 바탕

으로 물맛의 방향성을 세웠으며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물맛 기준인 ‘GPT(Good Pure Tasty water) 지수’를 만들어 제품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코웨이는 물맛 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수기 물맛 속성 정의 △정수기 필터 성능에 따른 물맛의 연관성 과학적 입증 △정수기만의 맛있는 물맛 기준 수립 등의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코웨이는 물맛 연구소에서 내놓은 핵심 성과들을 코웨이 정수기, 필터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해외 브랜드의 진격 전자담배 ‘춘추전국’

새로운 전자담배가 몰려오고 있다. 흡연자 10명 중 1명은 궤련형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국내 전자담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자 미국과 일본 등에서 검증받은 전자담배들이 잇따라 한국 시장에 출시를 단졌다.

전자담배 브랜드의 한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아이코스, 릴, 글로 등 3개 브랜드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시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기업인 줄 랩스를 비롯해 미국 액상 전자담배 브랜드 ‘픽스’, 일본의 ‘조즈’, JTI의 ‘플룸테크’, 킴리코리아의 ‘케이탱크’ 등이 한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줄 랩스는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로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에 오른 기업이다. 특허청에 ‘쥴’과 ‘JUUL’ 등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줄랩스코리아유한회사(JUUL L-

는 전자담배 판매 전문점과 멀티숍 등 약 300개 오프라인 매장과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다.

일본계 담배회사 재팬타바코인터네셔널(JTI)의 가열식 캡슐형 전자담배 ‘플룸테크’도 국내 진출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TI의 플룸테크는 필터에 캡슐커피와 같은 일회용 캡슐을 장착해 사용한다. 일회용 캡슐은 고체 담배와 액상이 있으며 이를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이다.

JTI는 2016년 3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플룸테크의 테스트 판매를 시작했으며 경쟁업체인 ‘아이코스’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영업환경(카페, 레스토랑 사용 허용)으로 제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킴리코리아의 궤련형 전자담배 디바이스 케이탱크X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편의점 판매를 본격화했다. 100% 충전 시 약 12-15개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취향에 따라 디바이



미국 액상 전자담배 ‘픽스’

일본 궤련형 전자담배 ‘조즈’

‘아이코스·릴·글로’ 3파전 속 새로운 브랜드 속속 등장
지난달 美 ‘픽스’ 공식 출시 이어 日 ‘조즈’ 오늘 론칭
흡연자 10명 중 1명 궤련형 전자담배...파워 경쟁 격화

abs Korea LLC)를 설립하며 한국 론칭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액상 전자담배 브랜드 픽스도 지난해 12월 11일부터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통해 공식 판매를 시작했다. 종전의 액상 전자담배에 비해 뛰어난 편의성과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인 픽스는 예약할 필요 없이 즉시 흡연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픽스 공식 수입사인 픽스엔디에스는 수도권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에 전국 매장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즈(jouz)는 지난해 6월 일본에서 첫 출시된 궤련형 전자담배로 17일 한국 공식 론칭을 앞두고 있다.

후발 브랜드이지만 일본 출시 전 일주일간 사전 판매에서 5000대가 팔려 나갈 정도로 주목을 받은 제품이다.

국내에 출시되는 제품인 ‘조즈20’은 1회 충전으로 최대 20개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1250mAh에 달하는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고도 58g이라는 가벼움이 장점이다. 또 영하 10도 추위에도 사용 가능한 점을 앞세워 지난해 10월 러시아에도 진출했다. 조즈

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열 파츠가 분리돼 청소나 파손시 교체가 용이한 것도 장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궤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그간 3파전이었지만 소비자 니즈가 세분화되면서 올해는 해외 시장에서 검증된 전자담배 기기들과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라며 “전자담배 시장의 급성장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관련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궤련형 전자담배의 지난해 11월 판매량이 3250만 갑을 기록해 2017년 5월 출시 이후 월별 판매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전체 담배 판매량 2억8800만 갑 가운데 궤련형 전자담배 비중은 11.3%에 달했다.

시장조사기업인 유로모니터인터네셔널은 국내 궤련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가 향후 5년간 연평균 16.7% 성장해 2022년에는 전체 담배 시장에서 궤련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33.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16일 오전 이마트 성수점에서 조명래(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이갑수(왼쪽) 이마트 사장과 정환성 이마트 성수점장에게 이마트의 자원순환 캠페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4월 환경부와 ‘비닐·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고 롤 비닐과 유색트레이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줄이고 있다. 이마트는 연내 롤 비닐 비치 장소와 비치량을 줄여 사용량을 종전보다 50%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사진제공 이마트

유통가에 부는 친환경 바람

이마트, 롤 비닐 줄이고 친환경 트레이 도입 ‘자원순환 캠페인’
롯데마트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해 청정 에너지 보급 확대

유통업계에 친환경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비닐봉지 등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 한편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 설치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부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업체의 친환경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다.

16일 이마트는 ‘롤 비닐 감축’과 ‘친환경 트레이 도입’ 등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한다. 우선 과일이나 채소를 담은 비닐백인 롤비닐 사용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상품 포장도 개선해 회집시 등으로 사용했던 플라스틱 유색·코팅 트레이 34종을 친환경 무색·무코팅 트레이로 전면 교체한다. 관련 조직도 신설했다. 지난해 하반기 ‘품질환경 안전센터’를 신설해 향후 PL(자체상표) 상품을 개발할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원 순환’ 요소를

고려해 패키지를 개발하도록 했다.

노브랜드 전문점과 PK마켓, SSG마켓, 부츠(드럭스토어), 일렉트로마트 등 총 400여 개 전문점도 3월부터 비닐봉지 대신 새롭게 개발한 부직포백 등 장바구니를 도입해 연간 총 200만 개에 달하는 비닐봉지를 절감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종이빨대를 도입한 세븐일레븐은 이날 ‘세븐카페 텀블러’를 출시해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나선다. ‘세븐카페 텀블러’를 이용할 경우 커피를 200원 할인한다.

롯데마트는 올해 21개 마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가 설치해 친환경 청정 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현재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춘 롯데마트 점포는 39개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21곳을 합하면 총 60곳으로 늘어난다. 이곳에서 연간 1만 23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GS수퍼마켓 역시 종이영수증, 종이프라이스카드(전자가격표), 비닐 쇼핑백을 사용하지 않는 3무(無)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자 영수증 발급’은 작년 한 해 총 발급 건수가 누적 400만 건을 넘어섰다. 점포의 80%에 설치된 전자가격표도 연간 총 170만 장 이상의 종이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GS수퍼마켓은 올해부터 친환경 부직포 쇼핑백 판매를 통해 친환경 활동을 이어간다.

유통업계가 친환경 움직임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형마트 등은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더해 전산 환경부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및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등을 위해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남주현 기자 jooh@

GS프레시, GS샵 손잡고 “신선식품 당일배송 강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 GS프레시(GS fresh)가 GS샵과 손잡고 신선식품 당일배송 서비스를 강화한다.

GS프레시는 16일부터 GS샵 모바일 앱에 신선식품 전문 매장을 열고 당일 배송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판매상품은 GS리테일 지평농장에서 기른 ‘우월한우’, GS리테일의 자체 브랜드(PB) ‘유어스’와 ‘리얼프라이스’, 밀키트 브랜드 ‘심플리쿠’ 등 신선식품과 생활용품, 패션, 디지털기기, 반려동물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 3만여 가지다.

GS리테일은 3300만 앱 다운로드를 돌파한 국내 대표 쇼핑몰 GS샵과 제휴를 통해 GS프레시의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신선식품과 일반 공산품을 오후 5시까지 주문 시 당일 배송받을 수 있는 GS프레시 당일배송 서비스는 GS샵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GS프레시는 이번 제휴를 기념해 GS샵 앱을 통해 이달 말일까지 매일 베스트 상품을 선정해 일정 수량에 대해 100원딜(상품을 100원으로 구매) 행사와 베스트 20 상품에 대해 특가 기획전을 진행한다. 또한 GS샵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적립금을 고객당 1회 지급한다.

남주현 기자 jooh@

미래형 스마트 스토어 롯데마트 이천점 오픈

체험형 라이프스타일 ‘그로서리마켓 매장’ 등 특화

롯데마트가 17일 차세대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이천점을 새롭게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이천롯데캐슬 골드스카이 1층과 지하 1층에 영업면적 6314㎡(약 1910평) 규모의 롯데마트 이천점의 문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 이천점은 반경 5km 내 전체 상권 가운데 중심 상권 2km 이내에 52.3%가 거주하는 초집중 상권으로, 대기업 공장이 있어 고임금 근로자가 많고 20대 인구가 전국 대비 높아 이들을 겨냥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품점을 뜻하는 그로서리와 레스토랑의 합성어인 그로서리마켓 매장을 통해 고객에게 체험형 라이프스타일의 마트를 선보인다. ‘룸바이홈’, ‘룸바이홈 키친’, ‘토이박스’ 등 롯데마트의 대표 특화매장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느낄 수 있는 쇼핑의 재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이닉스, 현대엘리베이터 등 인근 대기업 근로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단독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가계부 잘 쓰는 법’, ‘육아코칭방식’ 등 2030 세대의 관심 분야에 맞는 문화센터 특강도 개설한다. 더불어 M쿠폰을 활용해 개인별 쇼핑 습관에 따른 1:1 맞춤 상품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롯데마트 이천점은 이번 달 초 문을 연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에 이어 차세대 스마트 기술이 적용돼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 형태로 구성됐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서며 ‘M쿠폰앱’을 스캔하면 이천점만의 행사상품 ‘시크릿쿠폰’을 받을 수 있고, 매장 내 모든 진열 상품은 종이 가격표 대신 QR코드가 표시된 ‘전자가격표시기(ESL)’를 사용해 매장 효율을 높이고 고객들이 QR 코드를 스캔해 장바구니 없이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매장 곳곳에 최첨단 ‘3D 홀로그램’이 설치돼 고객들의 쇼핑 호기심을 자극하며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게시판)를 비롯 무인계산대 10대와 별도 성에 제거 작업이 필요 없는 ‘지능형 쇼케이스’ 등도 함께 적용됐다.

김인규 롯데마트 이천점장은 “이천점은 차세대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스토어로 꾸며졌으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점포”라며 “초집중 상권에 있는 만큼 경쟁사 이상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이천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매장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외인 옛새간 1兆 매수... 코스피, 2100 고지 탈환

中 경기부양·英 브렉시트案 부결
정부 IT 규제 완화 기대감 커져
삼성전자 4564억 최다 순매수
개인·기관 매도와는 대조 이뤄



코스피지수가 16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0.43% 오른 2106.10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가 증가 기준 2100선을 넘어선 것은 작년 12월 5일(2101.31)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의 6거래일 연속 매수세에 힘입어 2100선 고지를 탈환했다. 외국인은 이 기간 1조 원 이상 순매수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1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3% 오른 2106.10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가 증가 기준 2100선을 넘어선 것은 작년 12월 5일(2101.31) 이후 처음으로 약 40일 만이다.

지수 상승을 이끈 주역은 외국인으로 하루 새 99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 869억 원, 189억 원어치 매물을 던진 것과 대조적이다. 외국인은 9일부터 이날까지 6거래일째 주식 쇼핑에 나서며

총 1조1525억 원어치를 바꾸기에 달했다. 래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4564억 원어치를

담았다. 이 밖에도 SK하이닉스(1129억 원)와 삼성SDI(876억 원), 한국전력(415억 원), LG디스플레이(342억 원) 순으로 투자했다.

시장에선 한껏 위축된 국내 증시에 작은 호재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반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외국인 매수세를 이끈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인민은행은 전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도 강화, 감세 확대, 인프라 투자 증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은행 역시 연초 시중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이달 중 두 차례에 걸쳐 1%포인트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메이 영국 총리가 제시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15일(현지 시간) 영국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도 1차적으로 해소됐다. 물론 합

의 없는 탈퇴를 의미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은 향후 문제로 될 소지가 크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늘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시장 투자심리는 위축됐지만 유동성은 풍부하다 보니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하다"라고 밝혔다.

정다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 부양책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듯하다"며 "또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나 대통령이 계속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 IT나 신기술 분야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듯하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코스닥지수 역시 전거래일보다 0.43% 오른 693.38로 장을 마쳤다. 개인이 64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6억 원, 145억 원어치를 처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유전자 변형 실험동물, 고부가가치 사업 될 것”

장재진 오리엔트바이오 대표
‘크리스퍼 캐스 나인’ 기술 확보
올해 美·인도·캄보디아 중심
맞춤형 실험동물 ‘젬스’ 서비스



장대표는 “지난해 ‘크리스퍼 캐스 나인(CRISPR-Cas9)’ 기술을 도입해 개발한 실험동물의 생산과 판매 권리를 확보했다”며 “올해부터 미국과 인

도, 캄보디아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술이 적용돼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과정에서 유전자 유형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젬스’ 서비스를 본격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관계사이자 비임상시험(CRO) 전문회사인 제니아와 공동 진행하는 GEMS 서비스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유전자기위(CRISPR-Cas9) 기술을 이용해 연구자가 원하는

“유전자 변형 실험동물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적합한 개체로 우리 회사의 고부가가치 제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코스피 상장사 오리엔트바이오의 장재진(사진) 대표이사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2019년 경영계획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국내 유일 국제유전자표준(IGS) 실험동물 생산업체인 오리엔트바이오의 올해 주력사업 중 하나인 ‘젬스(GEMS-Genetically Engineered Models)’ 서비스는 유전자 변형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본격 개시했다.

형질전환 동물을 제작·공급하는 서비스와 단기간 내 원하는 수량의 실험동물을 브리딩(Breeding)해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오리엔트바이오는 한국 톨젠, 일본 찰스리버와의 전략적 공동 협업을 통해 형질전환 동물 제작 및 스피드 브리딩 서비스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유전자 기위 기술을 이전받고자 국내 유일 유전자 기위 기술 특허권을 소유한 톨젠과 협약을 맺었다. GEMS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술과 노하우는 글로벌 실험동물 시장 리더인 찰스리버에서 전수받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회사는 젬스 서비스 외에도 PDX 기술을 통한 암 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최신 서비스, 영장류의 질환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사업, 장기이식 연구센터 구축 등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개인 유가증권시장 거래액 거래수단별 비중 (단위: %)

2019년 1월은 14일까지 기준

	MTS	HTS	영입점 단말기	유선단말 (ARS)	기타
2018년					
1월	40.30	48.40	10.70	0.40	0.20
2월	42.20	49.00	8.10	0.40	0.30
3월	42.90	47.70	8.70	0.40	0.20
4월	44.20	47.20	7.90	0.40	0.30
5월	44.80	47.40	7.30	0.40	0.20
6월	45.20	47.50	6.60	0.30	0.30
7월	45.50	47.30	6.60	0.30	0.30
8월	47.00	45.20	7.20	0.30	0.20
9월	47.50	44.40	7.60	0.30	0.20
10월	46.10	46.90	6.20	0.40	0.40
11월	48.30	45.30	5.90	0.30	0.20
12월	46.70	46.10	6.60	0.40	0.20
2019년					
1월	46.90	45.90	6.60	0.30	0.20

※출처: 한국거래소

매년 늘어나는 ‘엄지족’ 주식거래

1월 개인 코스피 거래액 비중 47%... HTS는 2015년 이후 하락

올해도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일명 ‘엄지족’의 주식거래가 HTS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거래소가 개인투자자의 코스피 시장 주식거래액을 거래 수단별로 집계한 결과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MTS)의 비중이 작년 8월부터 PC 기반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의 MTS 거래액 비중은 지난해 8월 47.0%로 HTS(45.2%)를 처음 추월했다. 이후 9월, 11월, 12월에도 HTS를 누르고 MTS는 개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주식거래 수단이 됐다.

올해 1월에도 MTS 거래액 비중은

46.9%로 HTS(45.9%)를 앞섰다. 개인의 MTS 거래가 늘면서 개인·외국인·기관 등 전체 투자자의 코스피 주식거래에서 MTS가 차지한 비중도 지난해 22.9%로 HTS(24.7%)를 바짝 추격했다.

연간 MTS 비중은 △2015년 15.7% △2016년 17.3% △2017년 18.3% 등 매년 상승하고 있다. 반면 HTS는 △2015년 32.8% △2016년 28.1% △2017년 24.0% 등으로 하락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작년 MTS의 거래액 비중은 37.4%로 전년(35.2%)보다 상승했고 HTS 비중은 같은 기간 46.9%에서 42.4%로 떨어졌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계열사 매각 절차 STX, 항공·바이오 신사업 진출

GN바이오 지분 취득 계열사 편입
건강기능식품 등 사업 영역 확대
STX에어로서비스도 등기 완료
매각 대금 회생담보권 변제 사용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들에 의해 계열사 매각 절차를 진행해 온 STX가 신사업을 모색한다. 사실상 조선·중공업 부문은 해체 수순을 밟고, 항공·바이오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TX는 전날 GN바이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40%를 취득, 계열사로 편입했다고 공시했다. GN바이오의 상호명은 STX 바이오로 변경됐다. STX가 바이오 계열사를 추가했다는 소식이 이날 하루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9.96% 올랐다. 이번 계열사 추가를 통해 사료·비료 사업과 더불어 추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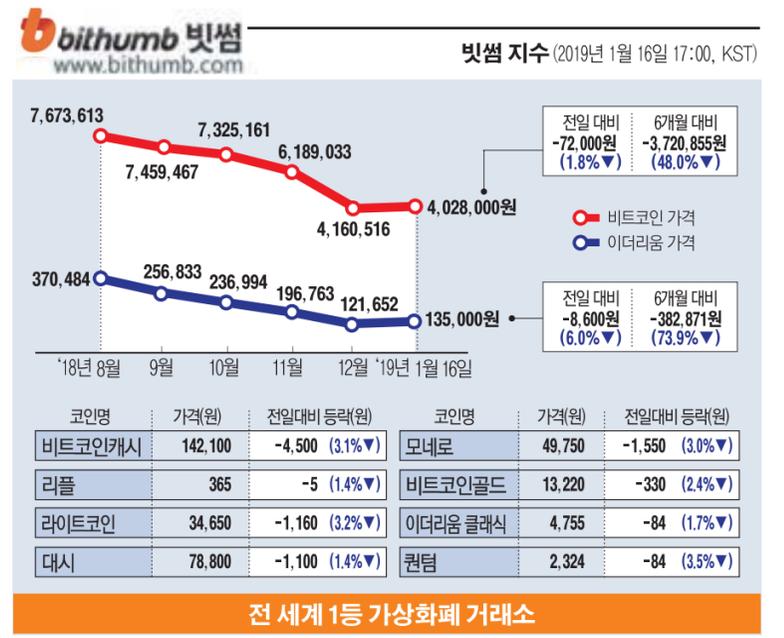
이보다 앞선 7일에는 지난해 11월 결정 한 신규 법인 STX에어로서비스의 설립 등

기가 완료됐다. STX 관계자는 “이번 설립은 항공정비 사업 진출을 위한 것”이라며 “초기 자본금은 7억 원이며 추후 사업진행에 따라 100억 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박제작 등에서 검증된 노하우를 항공사의 기술력과 접목시켜 토탈 항공 정비 서비스 제공사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유증 참여로 STX는 STX에어로서비스의 지분 70%를 보유하게 됐다. STX가 신사업 진출에 한창인 가운데, 주

요 계열사였던 STX중공업과 STX조선해양도 살 길을 찾아 분주하다. 지난해 11월 파인트리파트너스에 매각이 확정된 STX중공업은 변경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고 회사 분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7일에는 매각 예정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STX서비스와 STX리커버리의 물적분할을 결정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번 분할은 인가된 변경 회생계획안에 따라 매각 예정인 창원3공장을 매각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매각 대상자산 특성에 적합한 매각구조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을 통한 대금은 회생담보권 변제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아직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계열사다. 지난해 비영업자산 일체를 매각한 STX조선해양은 지난해 5월 채권단 관리절차 개시에 들어간 이후 연말까지 세 차례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앞서 장운근 STX조선해양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유동성을 기반으로 경영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중국·베트남 6개국 진출 미디어 커머스 사업 가속

기업 주식 담당자 주담과 Q&A

퓨처스트림네트웍스

퓨처스트림네트웍스(이하 FSN)가 최근 모바일 채널 기반 콘텐츠 제작 및 커머스 전문 기업인 '메이크어스'를 인수하고 미디어 커머스 시장에 진출했다. FSN은 지난 2년간 중국 및 주요 동남아 국가 현지 선도기업을 인수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등 종합 디지털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 경쟁력이 궁금하다

"2017년 광고 취급액 기준 국내 상위 10위 안에 올랐다. 이 같은 기록은 대기업·외국계 광고 대행사를 제외하고 독립 광고 대행사 중 유일하다. 애드쿠아(디지털 마케팅 대행 전문회사), 레코벨(빅데이터 기반 추천 솔루션 기업) 등의 인수가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전방위적 사업 확장을 가능케 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 및 동남아 주요국 총 6개국에 진출해 20여 개의 현지법인 설립하고 글로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 기반의 신규 사업 확대, 미디어 커머스 사업 진출 등으로 비욘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 글로벌 사업 전략 및 현황은

"현지 선도 디지털 마케팅 기업 인수 및 제휴로 현지화 전략과 국내 성공 솔루션 및 플랫폼을 글로벌로 확장한 크로스보더(Cross Boarder) 사업으로 동남아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국내 최대 블로그 마케팅 플랫폼 '위블'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태국 최대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퓨처스트림네트웍스 주가 추이



국내 광고취급액 톱10 진입 글로벌 사업도 年 50% 성장

고 플랫폼 '애드포켓'이 대표적 사례다. 글로벌 진출 사업은 2015년부터 평균 5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크로스보더 사업 시너지를 통한 더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 최근 메이크어스 지분을 인수했는데

"FSN은 미디어 커머스를 통해 '비욘드 마케팅'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실행 중이다. 관련된 자체 사업 계획과 FSN과의 시너지 창출 방안은 1분기 내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메이크어스는 콘텐츠 제작에 특화됐다. △애드쿠아(디지털 마케팅 기획 및 운영 특화) △GIDD 등 에이전시 △카울리(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기업) 등 자회사들의 역량이 결합됐다."

- 그룹 실적 추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약 30%의 매출 성장을 지속해왔다. 2018년은 애드쿠아 그룹 인수 등 밸류체인 통합 기대효과로 인해 비약적 외형 성장을 예상된다. 그룹 내 시너지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카울리'의 선전과 애드쿠아 그룹의 호조다. 올해 역시 미디어 커머스와 글로벌 등 신규 사업 확대로 더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 kjm@

다이이티 "현대차 비전검사 1차 협력사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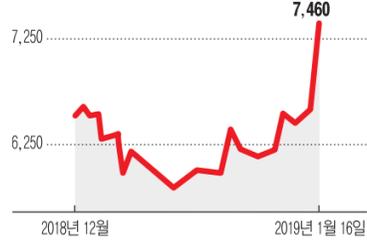
수소연료전지 검사 장비 공급 시장 확대 따른 추가매출 기대

다이이티가 현대자동차 비전검사와 관련해 1차 협력사로 등록되면서 지난해 수소연료전지 검사기 부문에서 매출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기록된 매출은 적지만, 시장이 확대되면 추가 매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비전검사와 관련해 1차 협력사로 등록되면서 테스트 기기용 라인으로 거래를 시작했다"며 "관련 매출이 10% 미만이어서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이이티의 주력 사업은 디스플레이 패턴 검사 장비·공정장비다. 대부분의 매출도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발생한다. 검사 장비의 핵심 기술인 광학 설계기술을 이용

다이이티 주가 추이



해 자외선(UV) 노광 장비, 레이저 가공 장비 등을 개발한 후 고객사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디스플레이 업종의 투자심리가 나빠지면서 16일 종가 기준 6590원을 기록해 주가도 공모가인 1만 원 대비 급락한 상태다.

이에 신사업으로 내세운 2차전지, 3D 검사, AI 영상처리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사업 매출은 디스플레이 매출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다. 특히 정부의 투자 방향이 전기·수소차 보급으로 잡히면서 수소전지 관련 장비 주로 역이는 모양새다.

이 회사 관계자는 "1분기 내 고객사 수소연료전지 부문에서 추가 입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입찰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과거 현대차와 도장면 검사기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신규 사업 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소연료전지 부문은 실제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참여하는 기업들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주문이 확정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고객사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다이이티는 3분기 연속 누적 기준 매출액 653억5200만 원, 영업이익 67억4600만 원, 당기순이익 80억9700만 원을 기록했다.

이정희 기자 ljh@

'핑크퐁 인형' 열풍에 관련株 방긋

美 아마존 사이트 완판 행진 속 삼성출판사·스마트스터디 주목

미국 빌보드 '핫100'의 32위 진입으로 촉발된 '핑크퐁 아기상어(사진)' 열풍이 심상치 않다.

증권가가 핑크퐁 브랜드 콘텐츠 개발사인 스마트스터디를 주목하는 가운데, 모회사(지분율 25.03%)인 삼성출판사의 주가도 들쭉이고 있다. 핑크퐁 캐릭터를 기반으로 인형·완구를 만들고 있는 토박스코리아와 오로라의 주가도 단기 급등한 바 있다.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핑크퐁 아기상어 콘텐츠의 실질적 매출 확대 여부다. 최근 감지되

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삼성출판사 관계자는 16일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서 스마트스터디 핑크퐁 제품이 품절 상태"라며 "추가 입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아마존 사이트에선 핑크퐁 인형 상품에서 완판 직전인 품목들이 감지되고 있다. 대표적 제품이 핑크퐁 아기상어와 아빠상어 인형이다. 이 같은 흥행 행진은 핑크퐁 유튜브 채널에 기반을 둔다.



핑크퐁 유튜브 영어 채널은 이날 기준 구독자가 1438만 명에 달한다. 한국어 채널은 324만 명이다. 일본어와 중국어 채널도 각각 42만 명, 58만 명으로, 핑크퐁이 이슈화될수록 구독자 수가 증가해 예상된다.

고종민 기자 kjm@

정부, 수소차 보급 확대에 이엠코리아 등 관련株 상승

정부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소차 관련주가 들쭉이고 있다.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수소차 보급을 지난해 약 2000대 수준에서 2022년까지 약 8만 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이날 수소차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다. 이엠코리아는 전일 대비 11.67% 상승했다. 이엠코리아는 자회사 이엠솔루션을 통해 수소 충전소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주로 분류된다.

이밖에 유니크(14.92%), 뉴로스(6.50%), 평화홀딩스(5.04%), 에스퓨얼셀(3.40%), 성장오토텍(2.64%) 등이 동반 상승했다.

이정희 기자 lj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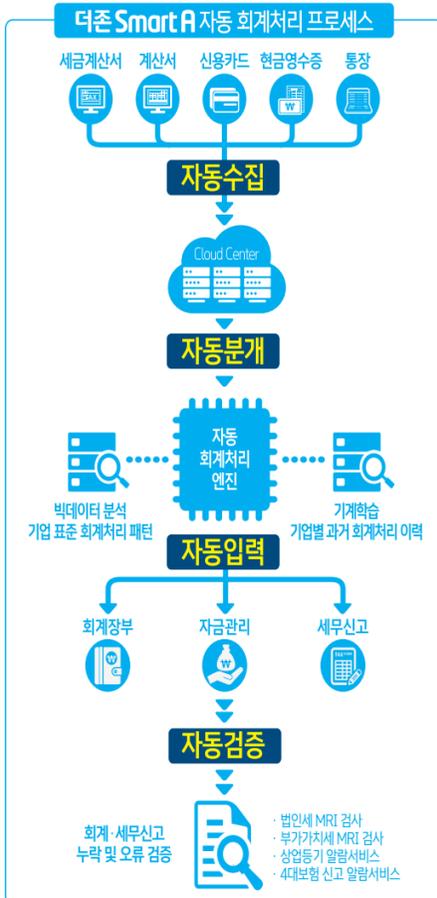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동관리
-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세금 폭탄이나, 공평과세 실현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 확산

표준주택 공시가격 급등 논란이 일파만 파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가 중산층도 부담 주는 '세금 폭탄'으로 귀결될 것이라 우려가 커지는 한편, 공평 과세를 위해 진즉 취했어야 할 조치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6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0.7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상승률(7.92%)의 2.6배 수준이다.

이에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막중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2300만 원에서 올해 10억400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 경우 소유주(만 60세 이하·5년 이하 보유)가 내야 할 보유세는 118만9560원에서 178만4340원으로 60만 원가량 증가한다. 당장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지만 정부가 1주택자 경우 전년 보유세의 150%로 상한을 정해놓기 때문에 이듬해에는 267만6510

공시가격 5억2300만 원 → 10억4000만 원, 연남동 주택 보유세 변동 (단위: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0세 미만·보유기간 5년 미만	118만9560	178만4340	267만6510	366만3840
70세 이상·보유기간 10년 이상	118만9560	178만4340	267만6511	327만8112
보유세 감면액	0	0	0	38만5728

* 1주택자 기준으로 2019년 공시가격에서 매년 변동 없다는 전제 * 보유세(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중부세+농어촌특별세)

서울 20.7%↑ 전망 '작년 3배' 공시가격과 복지서비스 연계 '저소득 서민층 악영향 우려'에 정부 관계부처 대응안 검토 중

원, 2021년에는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는 전제에서 366만384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세간의 우려만큼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단, 다주택자거나 초고가주택 소유주가 아닌 경우 보유세서 중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라 감면 폭도 그리 크진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위예로 든 마포 연남동 주택 소유주는 2021

년 327만8112원을 보유세로 낸다. 중부세로 40만 원가량 아끼는 셈이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세 부담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서민층이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초연금은 선정 기준액 조정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다수 여당 소속인 서울 서초·강남·종로·동작·성동·마포 등 6개 구 구청장들은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한 상태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구도심 새 아파트 '분양불패'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인기 인천·광주·춘천 등 신규 대거

완성된 생활 인프라를 갖춘 구도심 '새 아파트'가 부동산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도시들을 중심으로 구도심 분양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도심은 교통, 학교, 문화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입주와 동시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주변 노후화된 주택들 사이에 지어지는 새 아파트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에게 선호도도 높다.

실제 지난해 분양한 단지들 중 상위권 대부분은 구도심 '새 아파트'였다. 대전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 둔산1단지(321.36대 1)',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 자이(171.41대 1)' 등이 모두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 인천 계양, 서울 청량리 등의 수도권 주요 도시와 광주, 대구, 춘천 등 지방의 구도심에

서도 '새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에서는 삼호와 대림산업이 계양구 효성동 254-14번지 일원 효성1구역 재개발 단지인 'e편한세상 계양더프리미어'를 분양할 예정이다. 삼호와 대림산업이 공동 시공하며 지하 2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646가구로 조성된다.

서울 청량리에서는 롯데건설이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원 청량리4구역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를 분양할 예정이고 광주에서는 반도건설이 광주시 남구 월산동 363-1번지 일원에서 분양 중인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의 1순위 청약의 받는다.

또한 대구에서는 동원개발이 대구시 동구 신천동 478번지 일원 뉴타운 신천 주택재건축 단지인 '동대구비스타동원'을 분양할 예정이고 춘천에서는 디에이씨개발이 강원 춘천시 온의동산44-1(온의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에서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서울 '복정·사당·신내' 역세권 개발 검토

SH공사 "상업·주거시설 계획"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송파구 장지동 복정역,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중랑구 신내동 신내IC 일대 등에 대한 역세권 개발 계획을 검토 중이다.

16일 SH공사에 따르면 최근 복정역, 사당역 등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 및 상업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의 '2019년 주요사업 계획'이 최근 검토됐다.

SH공사는 올해 복정역, 사당역, 신내역 3곳에 상업·주거 시설을 건립해 도심 내 주거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복정역 인근 서울시 소유 주차장 부지 1만8458㎡, 업무시설 부지 1만7939㎡에 주거·상업·문화 등 복합시설, 화훼마을 부지 7832㎡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당역 인근 교통공사 소유지 및 국유지로 등록된 주차장 부지 1만7777㎡, 한전 변전소 부지 4095㎡, 대교 소유 방배동

446-3(8006㎡) 부지는 환승센터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용마산로 신내IC 인근 중앙공원차고지와 나대지 등 총 25만㎡에는 신혼·청년 임대주택, 주상복합시설 등이 들어서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영차고지는 이전 혹은 입체 복합화 개발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문화산책방향 그린벨트 해제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H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계획·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성동구치소 등 이전적지와 염곡차고지, 은평 공영차고지 등 저이용 유휴부지를 본격 개발하기로 했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6월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며 현재 마련된 정비안에 따르면 공공분양 700가구와 민간에 공급될 600가구가 포함됐다.

김진희 기자 jh6945@

동대문 아파트값 상승세 '마용성' 제쳤다

재개발 탄력 매매가 상승 강북 1위

서울 동대문구의 숙원사업으로 불리던 청량리 재개발 사업이 탄력받으며 아파트 값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간 주민 사이 견해 차이와 사업시행자 변경 등 이유로 미뤄지던 재개발 사업이 물꼬를 튼 것이다.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 경제만랩은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동대문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월에만 해도 동대문 아파트값은 3.3㎡당 1880만 원 수준이었으나 12월에는 2403만 원까지 올라 27.81% 상승률을 보였다.

동대문 내에서도 청량리 인근이 주목받고 있다. 집창촌(청량리588)이 철거되고 65층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등 인근 주택가

2018 서울 강북 아파트 가격 상승률 (단위: %)



는 뉴타운으로 변하면서 이 일대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래미안 크레시티' 전용 121㎡는 2017년 4월에만 해도 8억200만 원에 실거래됐지만 지난해 11월에는 12억6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4억6600만 원이나 올랐다. 이 기세로 동대문은 지난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까지 제치며 강북지역 아파트값 상승률 1위의 자리에 올랐다.

이신철 기자 camus16@

Premium Toothpaste

천연유래 식물성분 처방

덴탈 스케일링 치약

9無 루바스천연치약

(주)루바스 바이오 제약

LUBAS

유해 성분
9無

치은염,
치주염 예방
구취,치태 케어

잇몸질환 예방
약한잇몸 케어

20년 한방발효과학
100세건강치약
루바스가 앞장서겠습니다

after
1 day
your teeth
feel
refreshed

after
1 day
your teeth
feel
refreshed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www.lubaskorea.com

구입문의 1599-0203

“檢, ‘신한금융 남산 3억 사건’ 봐주기 수사”

검찰과거사위, 최종조사 결과 심의 “형식적 조사로 관련자에 면죄부 수사 미진...명백한 규명 필요” 권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해 명백히 규명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4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뇌물로 의심되는 비자금 3억 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는 등 심각한 수사미진 사항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이른바 ‘신한사태’는 라웅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2010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임직원을 이회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15억

6600만 원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신 사장 등을 기소했으나 ‘남산 3억 원’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남산 3억 원’ 의혹은 2008년 대선 직후 이백순 전 행장이 라웅찬 전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이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신한은행 측이 신 전 사장을 고소한 것은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봤다. 라 전 회장 등과 검찰 수뇌부, 수사팀의 유착관계는 조사권의 한계로 밝혀내지 못했으나 신 전 사장에 대한 편파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남산 3억 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고의로 진상을 은폐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수사가 미진했던 점을 확인해 이미 수사 촉구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신 전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오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위원회는 라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황도 파악했다. 위원회는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추가 수사를 통해 라 전 회장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상훈 단독 책임으로 이뤄진 것은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등에 대한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MARQ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안내



“내 일자리는 어디에...” 16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방통위 내 이용자정책국, 행정법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최성준 전 방통위위원장이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보고받고도 조사 연기를 지시한 의혹,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자체 감사 결과 최전 방통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폰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체 감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6년 4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폰을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도 6월에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불법 개조차’ 근절 나선다

서울시·경찰 등 22일부터 합동 단속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전조등, 굉음을 발생하는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관계기관과 서울시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 단속도 병행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황제보석’ 이호진 前 태광회장 7년 구형

檢 “반성없다”...이 前 회장, 모친 사망 거론하며 “사죄”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 있는데도 보석을 허가받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자중해야 하는 시기에 술·담배를 일상 삼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며 “재벌들의 법 경시 태도가 드러난 예시”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과 이 전 회장은 건강 문제와 모친의 사망을 언급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윤한술 기자 charmy@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 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짹짹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짹짹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짹짹 TV)

구독 문의 (02) 799-2680

꽃 산업 살리기 나선 aT... 화훼농가 '웃음꽃'

소비 촉진·창업 지원·품종 개발... '이달의 꽃' 선정 소비자에게 추천 꽃 이용한 과자·전통주 만들기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꽃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소비 촉진과 창업 보육 지원,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화훼농가에 '웃음꽃'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aT가 추진하는 꽃 산업 살리기의 핵심은 소비 활성화다. 2016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돼 선물용 꽃 소비가 줄면서 화훼농가는 큰 타격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화훼류 판매액은 5658억 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인 2015년 6332억 원에서 10% 이상 줄었다. 화훼 판매량도 10억 본(本)에서 8억7000만 본으로 2년 만에 1억3000만 본 감소했다.

aT는 화훼 농가가 어려움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기념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소비할 수 있는 꽃 수요를 만들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계절마다 어울



aT가 리류 브랜드 '망고'와 손잡고 재활용 소핑백을 사용한 고객에게 '이달의 꽃'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aT

리는 꽃 품종을 '이달의 꽃'으로 선정해 소비자에게 추천하고 있다. 선정 품종은 출하 시기와 소비자 만족도, 꽃말, 관련 기념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올해엔 국화와 리시안투스, 올마, 포인세티아가 이달의 꽃으로 선정됐다. 이달의 꽃을 소비자가 믿고 소비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드는 게 aT의 목표다.

aT는 이달의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

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최근엔 제조 유통 일괄형(SPA) 리류 브랜드 '망고'와 손잡고 비닐 소핑백을 사용하지 않는 손님에게 이달의 꽃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꽃 소비 촉진과 환경 보호, 기업과 농가의 상생이라는 '세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는 취지다. 한국전통식품문화관과는 꽃을 이용한 전통 과자 만들기, 식용 꽃 전통주 시음회를 열었다.

aT는 이달의 꽃을 이용한 원예 치료도 준비하고 있다. 꽃을 자주 접하면 행복감을 높이는 체내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원예 치료를 진행한 결과 정서적 삶의 질은 치료 이전보다 13% 높아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각각 45%, 34% 줄었다. 이 덕에 aT는 이달의 꽃이 유용한 심리치료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T는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품종 발굴에 진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잘 피고 오래가는 장미 콘테스트', '잘 피고 오래가는 국화·백합 콘테스트'를 열었다. 원예 전문가와 화훼 산업인이 심사에 참여해 탐스럽고 오래가는 꽃을 뽑았다. 장미 부문에선 '레드이글'이, 국화와 백합 부문에선 각각 '바르카'와 '시베리아'가 대상을 받았다. aT는 다른 품종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회를 열어 품질 좋은 꽃을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aT는 꽃 보급·발굴을 책임지는 전문가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aT는 꽃 생활화 운동인 '일상에꽃(일상愛꽃)' 운동을 이끌

전문 인력으로 '꽃 코디네이터'를 육성하고 있다. 꽃 상품 디자인부터 배달, 관리, 수건까지 전담하는 전문가다. 2016년부터 우수 꽃집 경영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올해까지 800명가량의 꽃 코디네이터를 배출했다. aT는 이들에게 화훼 관리 실무뿐 아니라 이미지 메이킹, 고객 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경영 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aT는 창업 보육을 위한 꽃집 창업지원센터도 설치했다. 프로그램 중 꽃집 운영 현장체험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본격적인 창업에 앞서 aT 화훼사업센터 입주 업체 등에서 일하면서 꽃다발과 화환 제작, 영업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준비생들이 큰 위험 부담 없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문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이달의 꽃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화훼생산자, 판매자, 협업기업, 소비자 모두가 꽃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부터는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근로복지공단은 14일공단인산병원 대강당에서 산재관리 의사(DW)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산재관리 의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사진제공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 '산재관리 의사' 도입... 치료·재활 토털서비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환자는 초기 치료 단계부터 전문 재활치료와 직업 복귀까지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의료기관 12곳의 전문의 39명을 국내 최초로 산재관리 의사(DW)로 임명했다.

산재관리 의사는 산업재해의 특성과 제도를 이해하고 산재환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 등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의로, 산재환자의 초기 치료 단계부터 직업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함께한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구역·제주 꽃자왈 등 "올해 축구장 8000개 면적 사유림 매수"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 기능을 확보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539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8000여 개 면적에 달하는 사유림 5821헥타르(ha)를 매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인접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관련 법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꽃자왈 등이다.

매수한 산림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뤄지도록 산림 기능별로

경계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 휴양 등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산림청은 1996년부터 사유림 매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9만1446ha를 사들였다. 그 결과 21.7%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 대비 국유림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말 25.9%를 기록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비율을 34%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한수원·원전기업지원센터 경남지역 협력사와 간담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원전 기업지원센터는 15일 창원 풀만 엠베스터 호텔에서 경남지역 원자력 주요기기 공급 협력사와 경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사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30여 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사의 애로 사항을 듣고 기술인력, 판로, 금융, 연구개발 등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수원과 원전기업지원센터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협력업체 지원 방안과 핵심인력 유치 등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40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를 위하여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파괴적 혁신을 강요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가뜩이나 힘든 40대 중년들의 어깨를 더 움츠려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부르짖을 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 2,800원 | 252쪽

고즈윈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4층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사랑보다 ‘돈’ 좇는 청년... 인생 의미부터 찾아야죠”

W 기획 인터뷰

곽금주 교수의 ‘흔들리지 않는 인생론’

‘인생은 (30세)부터’라는 말이 있다. 팔호 속 나이는 상황에 맞게 끼워 맞출 수 있다. 40대를 목전에 둔 이들은 ‘인생은 40세부터’라며, 새로운 삶을 설계할 것이라 자신한다. 50·60세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꾸려온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된다’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소위 ‘어른’들도 아직 자신의 삶이 흔들린다고 생각한다. 용기를 얻고 싶어 한다.

이 흔들림은 20살 청년에게 더욱 강하게 다가온다.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면 꽃길만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치열하게 달렸지만, 캠퍼스 위에서 내딛는 한발 한발이 너무나도 무겁기만 하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온 것인가’라는 아주 피상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앞으로의 진로, 재테크 등 아주 현실적인 고민까지 한다. 그 고민은 어느새 청년들의 자아를 집어 삼켜버린다.

곽금주 서울대학교 교수의 심리학 교양강좌인 ‘흔들리는 20대’를 수강하기 위해 매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다. 이 강좌는 대학 입학 후 극심한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방향하지 않고 인생 설계를 잘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2005년 개설됐다.

그는 “치열한 입시를 마치고 서울대까지 온 학생들이지만,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강의는 신입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미 강의를 들어본 선배 혹은 친구들의 추천 때문이다. 그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 강의에서는 사랑·우정부터 성행동·동거, 진로 등 20대를 감싸는 고민들이 주제로 다루진다.

결과 중심적 성취동기로 키워진 ‘고딩’ 대학교 진학 후 인생 의미 못찾아 방향

◇‘사랑’에서 ‘진로’로 바뀐 청년들의 고민 = ‘20대 심리학’, ‘습관의 심리학’ 등 저자로 잘 알려진 곽 교수와 최근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이투데이 사옥에서 만났다. ‘아프니까 청년’이라는 말로 위로받고, 자신을 위한 조언이 절실한 2030 세대의 심리를 파고든 그를 통해 사회 기저에 깔린 심리를 들여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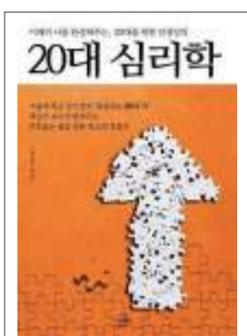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해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고민이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결과 중심적 성취동기로 키워지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죠. 전공이 안 맞아서 휴학했다가 고시 준비를 하고, 다시 복학한 10학년 학생이 상담을 요청해온 적도 있어요. 강의를 들은 이후에 이제야 자신을 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2011년 이전까지 학생들은 ‘사랑’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로’라고 답한다. 사랑, 행복과 같은 내 안의 감정보다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주된 관심사가 돼버린 것이다. 곽 교수는 “사랑 챗터를 3~4주 진행하는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일을 받기도 한다”며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고 했다.



언론 단골 코멘테이터인 곽금주 교수는 스스로를 심리학 전도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강의나 책에서만 지식을 말했으면 더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젊은 친구들은 다 씬만 타잖아요. 손해 보기 싫고, 간만 보다가 차일 것 같으면 더는 다가가지 않고요. 옛날엔 죽기 살기로 쫓아다녔는데 이제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자신만 가꾸는 ‘초식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진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것도 좋지만,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지, 잘하는 일을 할 것인지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외재적 동기는 ‘돈’인데, 그것만 좇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자신의 강의 주제 ‘흔들리는 20대’를 책으로 엮은 ‘20대 심리학’.

면 허망해집니다. 또 다른 것을 찾아야 해요. ‘의미만 들기’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을 먼저 확립하지 않으면 또다시 흔들릴 테니까요.”

‘여자가 일하면 시집 못간다’는 부모님 옛날 방식 싫어 아이들 정반대로 키워

◇잠 줄여가며 연구하는 완벽주의자... “SKY 캐슬”보다 더한 집에서 자랐죠” = 곽 교수는 요즘 TV 드라마 ‘SKY 캐슬’에 흠뻑 빠져 있다. 심리학자답게 ‘SKY 캐슬’ 얘기를 꺼내자 진화심리학 관점에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어 그는 “SKY 캐슬은 입시 경쟁, 과시욕, 입시 비리 등 우리 사회 단면을 다 보여주는 사회 고발성 프로와 같다”고 분석했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탔는데, 20대 후반 여성이 자신의 친구한테 ‘우리 엄마는 SKY 캐슬 못봐. 우리 어릴 때 혼내던 것 생각난대’라고 말하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온 가정들은 굉장히 부유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부자집에만 국한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심리는 어느 계층이나 있죠. ‘나도 아이의 공부 때문에 그 난리를 피웠는데’, ‘나도 엄마랑 저렇게 갈등했는데’라고 공감하면서 드라마를 보게 돼요. 동시에 ‘배 아픈 심리’를 해소하기도 해요.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한참을 ‘SKY 캐슬’을 분석하고, 결말을 추측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자연스럽게 슬하에 두 자녀를 둔 곽 교수에게 자녀를 키운 방식에 대해 물었는데, “SKY 캐슬과 정반대로 키워라”는 답이 돌아왔다. “저희 어머니는 ‘타이거맘’이었어요. 말 그대로 ‘SKY 캐슬’이었죠. 아버지는 서울대, 어머니는 이화

여대를 나오셨는데,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말도 못했죠. 공부는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직업을 가지는 건 싫어하셨어요.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여자가 직업을 가지는 게 싫으면 공부를 안 시키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연구할 때 굉장히 강박적으로 해요. 토씨 하나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릴 때부터 완벽히 준비한 후 시험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는 ‘너희가 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해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서운해하더라고요. 하하.”

곽 교수는 국내 박사다. 이 역시 외국 유학을 가면 안 되고, 여자가 일하면 시집을 못 간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의 영향이었다. “정말 이상한 옛날 사고방식이었죠.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심리학이 정말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심리학’은 내가 행복할 수 있어 하는 일 더 많이 보고 읽으니 어느새 ‘1인자’ 돼

◇서울대 커뮤니티에 떠오른 ‘곽서심교’... “심리학이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 곽 교수의 이름은 언론을 통해서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전문가들이 내놓은 원인 분석을 신문 하단부에 실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나 그의 이름 석 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앞글자를 딴 ‘곽서심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곽서심교’ 너무 웃기지 않나요? 처음에는 무슨 종교 이름인가 했어요. 몇 년 전에 서울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 게시판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기분 나쁘지 않던데요?”

그는 많으면 하루에 열 통이 넘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기도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상황이 되면 모든 전화를 받고 코멘트를 준다. 한때 한 언론사에서는 ‘곽금주는 아껴두자’는 지령이 내려올 정도라고. 한 지면에 ‘곽서심교’가 중복으로 등장하면서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

“학자로서 지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에 봉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저의 심리학 지식을 기자에게 말하고, 기자가 대중들한테 알리는 것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려고 더 공부하게 됐어요.”

황당한 기억도 있다. 2011년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이혼설이 터지자, 한 지상파 방송사가 찾아와 ‘서태지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 침묵했던 심리가 무엇인가’고 물은 것이다. 곽 교수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서태지에게 직접 물어보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예프로그램에서 찾아오면 모를까’라는 말도 덧붙였더니 같은 방송사 연예 프로그램에서 찾아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곽 교수는 “모든 게 심리학으로 풀리는 줄 아는 것 같다”고 말하며 “하하” 웃었다.

주변에서는 왜 시간을 빼앗겨가며 인터뷰를 하고 있느냐고 타박을 하기도 한다.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줄여가며 해낸 연구로 책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은 수없이 들었다. 왕따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 정립시켰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연구한 것을 잘 알기에 주변에서 더 아까워한다. 하지만 그는 ‘곽서심교’라는 재미난 호칭을 얻고, 다른 교수들보다 ‘썩만다’ 등과 같은 신조어를 더 빨리 익히는 게 더 즐겁다. “저는 폰수예요”라는 말과 함께.

“제 전공인 발달심리학은 심리학의 소우주라고도 해요. 영유아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층까지 전 생애를 연구하니까요. 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얘기하는지 말해주는 학문인데, 연구실에서 논문만 쓰는 거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소통하는 거죠. 더 많이 보고 더 읽으며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저한테 ‘1인자’, ‘유명한 심리학자’라고 하더라고요. 몰정도 모르고 실리도 안 따지니까 ‘곽서심교’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강의나 책에서만 말했으면 그런 재밌는 용어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모두에게 열려 있는 친(親) 코멘테이터인 곽 교수도 절대 하지 않는 코멘트가 있다. “대통령 심리, 국회의원 심리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제일 관심 없는 게 정치예요.” 김소희 기자 ksh@



곽금주 교수가 서울대에서 ‘흔들리는 20대’ 강의를 하고 있다.



고맙습니다,

층간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를 항상 이빠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더 주의시킬게요!

이웃님!



더불어살아가는 
 우리는이웃입니다.

아래층 아주머니가 윗집으로 올라간 이유가 궁금하다면?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캠페인 [층간소음]편 영상보기



국내 첫 온라인증권사...모기업 없는 스폰서 구단 “키움+히어로즈 공통 키워드는 혁신”

박준상 대표·장정석 감독

“손잡아 준 키움증권에 감사
감동적 스토리 만들어 갈 것”
“새로운 스폰서와 첫 출발
올 시즌 목표는 당연히 우승”



키움히어로즈가 창단식을 열고 첫 출발을 알렸다. 이로써 2019년 시즌부터 5년간 키움증권은 히어로즈의 '네이밍 스폰서'로 활동하게 됐다.

장정석(오른쪽 사진) 키움히어로즈 감독은 15일 열린 키움히어로즈 창단식 직후 다시 한 번 우승을 강조했다. 장 감독은 “올해만큼은 키움히어로즈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승을 좀 더 강조할 계획”이라며 “준비 과정에서 목표가 없다면 그 과정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부터 준비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스폰서로 첫 출발이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도 잘하고 싶다”던 그는 “(감독 자리가) 매우 힘든 자리이지만 내가 못하는 부분은 코치를 비롯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 준 덕분에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다”며 지난 시즌의 공을 구단 스태프들에게 돌렸다.

키움이라는 이름을 처음 달게 된 만큼

야구계에서는 당장 다가올 캠프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에 대해 장 감독은 “투수 파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선발진 구성을 신경 쓰고 있으며 이후 중간과 마무리까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수의 경우 이지영이 새로 들어와 주효상과 함께 한 시즌 큰 힘을 발휘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준상(왼쪽 사진) 키움히어로즈 대표이사는 스폰서십 계약을 맺은 키움증권에 감사를 표했다. 박 대표는 “함께 손잡아준 키움증권과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이제 키움과 히어로즈가 만나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키움증권이 국내 최초 온라



인 증권회사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듯이 히어로즈 역시 모기업 없는 스폰서라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했다”며 혁신이라는 공통 키워드를 강조했다. 이어 “키움증권은 동일한 자산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며, 히어로즈는 선수를 잘 키우는 구단”이라며 “잘 키워낸다는 점 역시 비슷한 두 회사가 올해 새로운 네이밍을 통해 더 강력한 영웅 구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히어로즈는 창단 후 11년간 ‘모기업 없는 네이밍 스폰서 계약’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구단을 운영해왔다. 지난해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 플레이오프까지 오른 바 있어 올해는 야구팬 사이에서 우승 전력으로 꼽히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e0@

권오규 前부총리 “직면한 문제 드러내고 극복 믿음 가져야”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



권오규(사진)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한국 경제에 대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극복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회계·컨설팅기업 EY한영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미래 소비자의 파괴와 충격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권 전 부총리는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새해 경제 상황을 ‘위험의 확대’와 ‘중첩된 난관’으로 정의했다. 그는 “2019년은 인도, 아세안,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인 성장 둔화에 예측된다”며 ‘미·중·일·유럽연합(EU)이

저성장세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에 강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도 ‘생각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미국보다 낮은 기준 금리이지만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예외 상황이며, 낮은 금리가 영원하고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부총리는 위기 극복 방법으로 “우리 기업이 생존하려면 현실 직시(Focused), 유연한 대응(Flexible), 미래 투자(Forward-looking)의 ‘3F’를 통한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손경식 회장 “기업인 기 살리는 조치 빨리 이뤄져야”

그룹사 인사·노무 책임자 간담회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일자리 양성을 위해 정부가 기업인들의 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주요 그룹사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손 회장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은 지난 2

년간 30% 가까운 인상을 기록했다”며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경제인과 자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正道(正道)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호흡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소프트뱅크벤처스 새 CFO에 이승훈 전 모건스탠리 상무 선임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이승훈(사진) 전 모건스탠리 상무이사를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승훈 신임 CFO는 새로운 직책을 통해 소프트뱅크벤처스의 글로벌 펀드 관리 및 국내외 출자자(LP)들을 전담하게 되며, 베이징, 싱가포르,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사무소의 재무 업무를 총괄한다.

이승훈 CFO는 모건스탠리 홍콩과 서울 사무소에서 15년 이상 주요 기업의 인수합병과 상장을 주관해왔다. 소프트뱅크벤처스 입사 전에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력이 있으며, 예일대 학사와 스탠포드대 석사를 졸업했다.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글로벌 벤처캐피털로 발돋움하는 변화기에 재무전략 전문가로 역량을 쌓아온 이승훈 CFO를 선임하게 됐다”며 “투자 부문과 협업해 소프트뱅크벤처스의 펀드 운용 전략을 이끌고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16일 충남 청양군 아산리 마을에서 진행된 ‘2019 신임 임원 봉사활동’에 참여한 신임 임원들이 농작물 수확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그룹

한화 신임 임원 94명,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한화그룹이 16일 겨울철 농촌 일손돕기 활동과 취약계층 가정에 설맞이 물품을 전달하는 ‘2019 신임 임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008년부터 시작돼 연례활동으로 자리매김한 ‘신임 임원 봉사활동’은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이다.

충남 청양군 아산리 마을에서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에는 지난해 12월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신임 임원 94명이 참여했다. 전체 60여 가구가 거주하는 아산리 마을

은 주민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로 겨울철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이다.

신임 임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춰 비닐 하우스 설치 작업과 축사 정비 활동, 농작물 수확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겨울철 일손이 부족한 아산리 마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일손돕기 봉사활동 외에도 설맞이 물품으로 쌀과 현미잡쌀 등 우리 농산물 150박스를 구매해 종로구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변효선 기자 hsbyun@

이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유일한賞’

유한양행은 제13회 ‘유일한 상’ 수상자로 이현재(90·사진 앞줄 가운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선정, 시상했다.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15일 오후 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유일한 상 시상식에서 이현재 명예교수에게 상패와 상금 2억 원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일한 상 심사위원회는 “이현재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폭넓고 깊이 있게 학문적 연구를 다해온 것은 물론, 교육자로서 사회



각계에 출중한 인재를 양성 배출해 왔다”며 “학자·교육자·문화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큰 사표이자,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정신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세종특별자치시 과전 박형민 <과장급 전보> △활용촉진과장 김미애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이귀현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장 배진석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정리관리과장 조병혁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영종정리개발과장 윤문상 △기획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규호 △공보문화과장 직무대리 서윤기 △투자유치기

- 획과장 백종화 △운영지원과장 정형섭
- ◆한국환경공단 <신규 임용> △감사 유성찬
- ◆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 김준배
- ◆동양건설산업 △토목사업본부 이사대우 강부용 △홍보실 이사대우 오재순
- ◆라인건설 △주택문화본부 부사장 김용원 △협력관리본부 이사대우 이석현 △경영지원본부 이사대우 오성민
- ◆동양생명 <승진> △투자팀장 오예구
- ◆소년한국일보 △콘텐츠 제작국장 박성태

부음

- ▲이철만 씨 별세, 이연성·주영·기영(영우디지털 부장) 씨 부친상, 정해봉(SK브로드밴드)·탁용원(아프로서비스그룹 홍보담당) 씨 OK저축은행 프래머구단 단장
- ▲장인상 = 16일, 일산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31-900-0444
- ▲강욱순(기밀라) 씨 별세, 김미숙(경기방송 KFM 미디어 대표) 씨 모친상 = 15일, 당진장례식장 무궁화 특1호실, 발인 18일, 041-354-4444

게시판

신성철 KAIST 총장 다보스 초청받아 한국 과학 기술원(KAIST)은 신성철 총장이 2019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신 총장은 글로벌 대학 리더스 포럼(GULF) 회원 대학 총장 자격으로 자리한다. GULF는 미국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영국 옥스퍼드대, 일본 도

교대, 중국 베이징대 등 27개 대학으로 구성돼 있다. 국제 고등교육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모임으로 알려졌다.

이용희 해양대 교수 국제해양법학회장에 이용희 한국해양대해사법학부 교수가 국제해양법학회 제6대 회장에 선임됐다. 이 교수는 “세계 해양 곳곳에서 분쟁과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연구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 이흥기 교수 복지부장관표창 건국대병원은 중앙혈액내과 이흥기 교수가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7년 11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서면 회의에 참석하고 의학 자문 검토 활동을 이어오며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본시장 속으로



조 두 영 변호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개인적으로 금감원장은 금융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공직자가 맡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재부나 금융위 출신의 원장일지라도 친정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돼 금감원 업무를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금감원장 임기는 3년이다. 그런데 금감원 건물에 서울 여의도에서도 바람 센 곳에 위치한 탓인지 역대 금감원장 중 임기를 모두 채운 사람은 거의 없다. 필자가 금감원에 근무한 7년 동안에도 원장은 세 번 바뀌었고 임기를 채운 사람은 당연히 없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IMF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관치금융의 폐해로부터 벗어나 금융산업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민간특수법인의 필요성으로 인해, 분산돼 있던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여 금감원이 설립됐다. 다만 금융산업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행정적 통제를 위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함으로써 민·관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됐다. 이러한 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법을 개정해 금융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감독권한을 갖게 됐는데, 법 개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금감원의 설립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금융산업에

대한 관의 일방적 지배가 많은 부작용을 낳았음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금감원장의 역할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항상 금융시장의 중요한 관심사다.

역대 금감원장은 대개 기재부 등 공직자 출신이 많아왔다. 금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행정적 측면의 숙달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공직자가 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다만, 부원장(수석)까지 공직자가 맡는다는 점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2018년 금감원장이 짧은 시간에 여러 명 교체됨으로써 금감원 위상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차라리 실력이나 인품이 어느 정도 검증된 공직자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면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금감원장은 금융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공직자가 맡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재부나 금융위 출신의 원장일지

라도 친정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돼 금감원 업무를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실제로 과거 금감원에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무리하게 진행된 사업들이 있다. 무분별하게 도입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나 과도한 취업제한, 정권 눈치를 보는 영혼 없는 금융검사, 축적된 기준이나 양정을 무시한 과도한 금융 기업 옥죄기 등 국민들이나 내부 직원들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한 제도나 구태들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노자 도덕경에는 “濼徐文覽 能無疵乎(적제현람 능무자호)”라는 구절이 있다. 뜻풀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도자가) 몸을 숙여 백성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는가”로 해석된다. 이는 공직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고 금감원장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장으로 일하면서, 지나가는 과객처럼 임해서도 안 되고,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여겨서도 곤란하다. 금융감독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 스스로 국민과 시장에 다가가 국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허리

굽혀 찾는 겸손함이 금감원장의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 생각된다.

공직자들은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 무슨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증이 조금씩은 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을 계속 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멋진 신사업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 사업을 뜬고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새롭고 화려한 것을 남기려 하기보다는 기존에 잘 정착된 사업을 계속 유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또한, 금감원 구성원들도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독립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해 금융기업에 대한 미숙한 검사, 억지스런 검사, 갑질 검사가 없어야 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를 금융기업 종사자들이 승복하지 않거나 제재안이 비웃음을 산다면 그건 금감원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금융산업, 금융시장에 대한 최후의 감시자(watch dog)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승차공유 갈등 뿌리는 불합리한 택시 규제



정상조의 생각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 뉴욕시 청사 앞에 4개의 관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택시 운전사들은 흰색 꽃을 한 송이씩 들고 와서 그 관 위에 놓고 청사 앞에 모여 외쳤다. “우버(Uber) 탐욕을 멈춰라!” “우리들을 노예로 만들지 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수만 명의 택시 운전사들이 승차공유(카풀) 앱 서비스의 금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분신자살로 카풀앱의 파괴적 성격을 호소했다.

본래 기술혁신은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경향을 갖고 있지만,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와 정부의 무책임한 수수방관이 운전사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카카오의 카풀앱 서비스는 택시 운전사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해 주춤하고 있고, 지난해 카풀앱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의 제한 없이 카풀앱 서비스를 확대하려다가 실패했다. 택시 이용자들의 불만도 심각한 수준이다. 택시의 승차 거부나 불친절은 물론이고 출퇴근 또는 심야시간대에

는 택시 잡기조차 너무나 힘들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 다수의 응답자들이 카풀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카풀앱 서비스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카풀앱 서비스가 필요하고 대세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카풀앱 서비스에 대해서 전자상거래처럼 자유롭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택시사업처럼 엄격하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과 오해가 있다. 미국의 아마존이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유통혁명을 일으킨 결과, 소매업 점포들은 물론 대형 백화점 시어스도 망해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엄격한 진입 규제를 받던 택시 산업에, 별다른 규제 없이 인터넷 대기업이 자유롭게 영업용 카풀 운전사를 모집해 기존의 택시면허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아마존의 사례와 전혀 다른 것이다.

택시는 일반 대중 운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신원검증, 택시 운전 자격, 영업용 책임보험, 택시부제, 요금, 면허대수 동결 등의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과 뉴욕의 택시 운전사들이 자살한 것은 최소한 택시와 카풀앱이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목숨바친 절절한 호소인 것이다. 기존의 불합리한 택시 규제를 완화하고 카풀앱에 대해서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상호 공정하게 경쟁하고 승객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인 것이다.

카풀앱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이해관계의 다툼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가 너무나 많아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기존의 택시 규제 가운데 가장 불합리한 것은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택시요금 규제일 것이다. 특히 출퇴근 및 심야시간대의 수료가 많기 때문에 두세 배 요금 인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요금 규제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엄청난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카카오택시가 5000원의 추가 요금을 전제로 즉시배차 서비스를 제안했지만 좌절된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요금 규제가 초래한 희생양인 하나일 뿐이다. 카풀앱 운전사는 수만 명씩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는데, 기존 택시면허 대수는 동결한 것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규제다. 뉴욕시도 우버 운전사 총수를 규제하고 기존 면허권자에게 복수의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가 계속되고 정부는 계속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우버와 같은 외국 차량공유 업체는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차량공유 업체에 대한 투자는 위축되는 반면에, 우리 기업들은 동남아 차량공유 업체 그랩(Grab)과 중국의 디디추싱(滴滴出行·Didi Chuxing) 등 외국 기업의 기술에 투자하게 된다.

조만간 ‘운전사가 필요 없는 택시 운송 서비스’가 도입될 것이다. 새해에는 미국 GM과 구글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시내 도로를 활주하고, 우버는 불보와 손잡고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카풀앱과 택시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 더 이상 기다릴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포용적 혁신성장’이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카풀앱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투데이, 말투데이

☆ 벤저민 프랭클린 명언 “평소에 근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정결, 침착, 순결, 겸손의 13가지 덕목을 정의하고 평생 인생 지침으로 삼았다. 작은 수첩을 만들어 매일 저녁 하루의 행동이 각 계율과 비교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해당단에 흑점을 찍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 그 수첩에 착안해 만든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일정 관리 수첩이 오늘날에도 성행한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706-1790.

☆ 고사성어 / 우공이산(愚公移山)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말로,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 열자(列子)의 탕문편(湯問篇)이 원전. 우공(愚公)이 사는 동네에 있는 두 산이 밖으로 나가는 길을 막았다. 우공이 그 산을 옮기려고 세 아들은 물론 손자들까지 데리고 돌을 깨고 흙을 파서 바다에 내다 버렸다. 모두 그를 비웃었지만 우공은 계속했다. 그의 우직함에 감동받은 천제(天帝)가 두 산을 두 군데로 옮겨 놓게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 시사상식 / 적자국채(赤字國債) 국가의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충하려고 발행하는 국채. 세입보전국채(歲入補填公債)·적자공채라고도 한다. 국채는 중앙정부가 채무자로 되어 발행하는 채권. 세출이 초과해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려고 일반경비의 재원으로 발행된다.

☆ 고운 우리말 / 왜통스럽다 엄청 새통스럽다. 보통 상태와는 달리 아주 엉뚱한 데가 있다는 뜻.

☆ 유머 /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손님이 가게 주인한테 “어젯밤 먹은 거와 같은 걸 시켰는데 오늘 거는 너무 작다”고 불평했다. 주인이 물었다. “어제 어느 자리에 앉았나요?” 손님이 “장가에 앉았다”고 했더니 주인의 대답.

“장가 손님에겐 큰 스테이크를 드립니다. 광고 효과가 만점이지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김지영 정치경제부/jye@

남탓 말고 풀 수 있는 규제 먼저 풀어야

대상이 가계이면 소득수도 성장, 기업이면 혁신성장일 뿐, 전반적인 내용은 과거와 유사하다. 공정경제는 전 정부 ‘경제민주화’의 바뀐 이름에 불과하다.

반면 어느 정부에서든 추진했지만 어느 정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냈던 부문이

있다. 바로 규제혁신이다. 전례가 없기에 효과도 예상이 어렵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재부흥의 열쇠가 규제혁신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성과는 미미하다. 현 정부도 혁신성장의 핵심 과제로 규제혁신을 내걸고 있지만 관련 입법은

지지부진하다. 법 개정이야 정치의 영역이라 치더라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까지 속도를 못 내는 상황은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시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고 그 목소리를 토대로 개선과제들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현 상황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굳이 시장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봐도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제들이 수도룩하다. 각 부처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한 달에도 수십, 수백 개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국회가 일을 안 한다”며 남탓을 할 일이 아니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Includes contact info for news, editorial, and advertising departments.

장석주의 시각 시인·인문학 저술가



새해 덕담

새해에 지인들에게서 연하장 대신 SNS로 덕담 인사를 받았다. 이는 예전과 달라진 풍습이다. 덕담 중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거나 '새해에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이 많았다. 새해에 이런 덕담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풍속이다. 우리는 왜 새해를 맞으며 이런 덕담을 나누는가? 누군가 내게 건넨 새해 덕담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더 행복해지라는 축원이다.

그런 덕담에 마음이 훈훈해지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았다. 이루고자 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 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일은 인간 내면에 일렁이는 갈망, 소망, 욕망과 관련이 있다. 무엇을 갖고 싶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다 욕망과 욕구에 포섭되는 일이다. 우리는 더 좋은 직장과 집과 자동차를 원하고, 멋진 옷과 가구와 첨단 가전제품을 원한다. 돈을 버는 이유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갈망하고, 또한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쓴다.

한마디로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다. 인간의 역사와 욕망의 역사는 그 시작점이 동일하다. 욕망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욕망이 시키는 대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갖고 싶은 걸 갖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 우리는 날마다 욕망과 욕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어느 면에서 인간 욕망은 삶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고, 자아 확장과 삶의 부피를 키우는 계기를 만들며, 성공을 향해 나아가도록 채찍질한다. 하지만 욕망은 창조와 파괴 양면으로 작용하는 힘을 다 함께 갖고 있다. 욕망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나쁜 사람으로 전락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외범절이라는 것은 욕망의 직접성을 감추고 에둘러가는 전략이고, 법과 규범들은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욕망을 강제하는 사회적 합의이다.

자기 내면의 필요에서 빚어지거나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알려진 욕망이 사실은 타인의 욕망을 베낀 것이라는 르네 지라르가 주장한 모방 욕망 이론은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그 모방 이론을 임상 심리 분석에 도입한 프랑스의 정신의학자 장-미셸 우구르리앙의 '욕망의 탄생'을 새해 들어서 읽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 속으로 녹아들어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의 존재와 그 빛나는 아우라와 그의 멋진 자율성의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내 욕망은 항상 타인의 욕망을 베낀 것이다! 장-미셸 우구르리앙은 그 연장선에서 "타인들이 관통해 지나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구조된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는 성향이 있다. 우리가 타인의 말과 생각과 옷차림을 닮으려는 것은 타인이 가진 매력 자본을 선망하는 까닭이다. 이를테면 명성, 아름다움,

덕성 따위를 선망하고, 그의 매력과 장점에 감탄하면서 모방하고 욕망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듯 인간 욕망은 타인에 의해 중개된 욕망을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자기 욕망의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욕망의 기원이 타인이라는 점을 망각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할 수 없다면/내가 해야 할 일은/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하지 않는 것.//그 둘이 같지는 않지만/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최선의 일.//내가 원하는 것을/가질 수 없다면/내가 해야 할 일은/이미 갖고 있는 것을/원하는 일.//그리고 아직 원할 것이/더 남아 있다는 사실에/만족하는 일.//내가 가야만 하는



젊은 시절엔 무분별한 욕망을 품고 뜨겁게 약동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나이 들면 욕망의 불꽃은 잦아든다. 나이 들어 경험치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완숙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삶은 끔찍하고 누추해진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새해엔 욕망을 덜어내는 노력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는다.

곳에/갈 수 없을 때/비록 나란히 가거나/옆으로 간다 할지라도/그저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을/따라갈 뿐.//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것을/표현할 수 없을 때/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느끼려고/나는 노력한다./그 둘이 같지 않다는 것을/나는 안다./그러나 그것이 왜 인간만이/수많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우는 법을 배우는가의 이유이다."(니키 지오바니, '선택')

앞서 말했듯이 욕망은 인간 본질의 일면이다. 그러나 욕망에 집착하고 극대화될 때 부작용과 병리적 현상들이 나타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욕망하는 것 모두를 다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지혜는, 미국의 시인 니키 지오바니(1943~)에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원할 것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도

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욕망하는 일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욕망은 타인을 자극하고 끌어당기는 메커니즘 속에서 움직인다. 욕망에는 미묘한 자성(磁性)이 있기 때문이다. 한 개별자의 욕망은 이러한 자성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타고 널리 퍼져나간다. 문제는 욕망의 거둬들이는 좌절과 실패에서 시작한다. 욕망의 실현이 꺾일 때 더러는 살인이나 폭력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 욕망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고 제 안에서 자라나면 욕망이 망동(妄動)으로 분출하면서 그 파괴성을 드러내야 한다. 욕망의 고삐를 죄고 그것을 부려라. 그렇지 않으면 욕망이 당신의 고삐를 죄고 당신을 부릴 테니!

우리에게 지속성과 정체성을 이루는 자아라는 것 역시 욕망의 산물이다. 욕망은 자아를 빚고 수많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빚는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 내던져서 자기 실존을 꾸린다. 타인과의 관계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욕망의 관계이다. 사람은 욕망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욕망의 존재로 길러진다는 뜻이다. 저마다의 삶은 욕망이 만든 무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500년 전 부처는 오랜 명상과 수행 끝에 제자들에게 존재와 사물의 덧없음(諸行無常)과 더불어 인생은 고(苦)라고 갈파했다. "태어나는 것도 고요, 늙는 것도 고요, 병드는 것도 고요, 근심, 슬픔, 괴로움, 걱정, 번뇌도 고다.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것도 고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고다." 태어남, 병들, 죽음, 싫어하는 것과 부딪침, 좋아하는 것과 헤어짐, 욕망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다 괴로움이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괴로움은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이다. 고통의 뿌리는 갈애(渴愛),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에 닿아 있다. 부처는 그 고통과 번뇌를 소멸시키고 욕망의 아수라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했다. 불교에서 하는 수행의 최종 목적은 해탈이다.

젊은 시절엔 무분별한 욕망을 품고 뜨겁게 약동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나이 들면 욕망의 불꽃은 잦아든다. 나이 들어 경험치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완숙 경험(mastery experience)'을 통해 지혜를 얻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삶은 끔찍하고 누추해진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새해엔 욕망을 덜어내는 노력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는다. 욕망을 버리고 더 많이 비우자. 과일나무도 열매를 수확시켜야 열매가 살해되는 법이다. 비움은 더 많은 가능성의 영역을 연다. 비워야만 채울 수 있다는 건 아주 단순한 진리다. 이미 가득 차 있는 자는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다.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하는 비움은 인생의 다이어트이고, 욕망의 다운사이징이며, 마음의 고요와 안녕을 얻기 위한 작은 해탈이다.

시설

정책방향 안바꾸면 경제 역주행 못막는다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과 거꾸로 가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에도 뒤처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주요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분석한 결과다.

OECD는 2018년 한국 성장률을 2.66%로 수정 전망했다. 작년 예측했던 3.04%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3.66%로 분석해 한국 성장률이 세계 평균과 1%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성장전망치는 2.89%이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12배나 크다. 한국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았던 해는 1980년 2차 오일쇼크, 1998년 외환위기, 2015년 메르스사태 때 등 세 차례밖에 없다. 작년에는 이 같은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한국 경제가 심각한 중병(重病)에 든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쇠퇴하는데 새로운 성장동력이 키워지지 않고 있는 게 주된 요인이다.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는 얼어붙은 데다, 일자리 사정 또한 최악이다. 여기에 세계 추세와 어긋난 정부의 정책 역주행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경쟁국은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 완화에 주력한 반면, 우리는 되레 법인세를 올리면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親)노동정책 일변도로 기업 부담만 잔뜩 늘린 탓이다.

올해는 더 문제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그동안 수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마저 호황이 꺾이면서 수출·투자·내수·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더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2% 성장도 쉽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들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과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쏟아낸 규제개혁 과제와 애로사항들에 귀 기울이는 등 소통의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시원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고, 기업인들이 호소할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 정당성을 계속 고집했다. 신항로 3·4호기 공사 재개 요구를 일축했고,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기대를 걸었던 기업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후속 조치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키로 했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지금 경제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틀린 방향을 바로잡지 않고, 획기적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뒷걸음치는 경제를 돌려세우기 어렵다. 그러한 근본적 정책 혁신 없이는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 확대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코다리와의 연결이

추운 겨울,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소주 한 잔을 곁들인 얼큰한 코다리 요리를 생각해 봤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 들어 코다리 요리를 하는 집이 부쩍 늘었다. 그런데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코다리'라는 말은 거의 들을 수 없었다. 명태 요리라 하면 으레 막 잡아 올린 싱싱한 명태를 끓인 생태탕이나 한 번 냉동 과정을 거친 명태를 끓인 동태탕 등이 주를 이루었지, 코다리라는 말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생태나 동태라는 말보다 오히려 코다리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코다리란 생태의 내장을 모두 제거하고 코를 껴서 달아매어 구들구들하게 말린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반건조 명태' 상품을 개발한 동해안 지역 주민들이 '코를 껴서 달아매었다'는 뜻에서 코다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전국적으로 퍼져 국어의 한 단어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말은 코다리라고 하지만 실은 입을 껴었다. 예전에는 생선을 코나 입을 껴서 매

달지 않고 새끼줄로 엮어서 매달아 건조하였다. 이것을 '엮었다'는 의미에서 '엮결이'라고 하였다. 대개 스무 마리를 한 단위로 엮었는데 스무 마리 한 묶음을 '한 두름'이라고 하였다. 특히 조기를 그렇게 엮어서 상품으로 유통했기 때문에 나중에 엮결이는 '묶음조기'의 대명사로 통용되기도 했다.

쇠태에 철사로 그물 뜨듯이 만들어 고기나 생선을 굽는 데에 사용하는 주방용구인 쇄쇠에 구들구들하게 반건조된 엮결이 조기를 구우면 그보다 더 좋은 밥반찬은 없었다. 명태는 본래부터 엮결이보다는 바삭 말려 열 마리씩 껴미를 지어 팔았다. 조기든 명태든 우리나라 생선을 대표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조기도 여력량이 줄고 명태는 거의 잡히는 게 없어서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한다고 한다. 수입한 걸로 웬 코다리 말고 국내산 코다리는 이제 영영 맛볼 수 없게 된 것일까? 생태탕은 거의 사라진 음식이 되고 말았나..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204마력,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

New Performer

SOUL
BOOSTER



The Power to Surprise

2019년 1월 14일 사전계약 개시